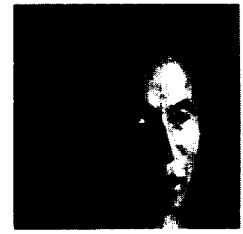
설화

<목 차>

1. 장밧동산에 얽힌 도채비 이야기
2. 주식 구박한 다슴어멍
3. 부저리 유래
4. 군산봉 아기장수 이야기
5. 토신(뱀) 이야기
6. 헛개와 도채비 이야기
7. 김통정 이야기
8. 구머리와 등게왓 이야기
9. 봉성리 지명 유래
10. 세 자매 이야기
11. 힘 센 장사 이야기(물밧테 장사)
12. 이서방 이야기
13. 도둑이 살았다는 하원 밧 이야기
14. 칠성뱀 이야기
15. 스무냥 이상은 모을 수 없는 주식 이야기
16. 별친 도채비 이야기
17. 거웃물로 환생한 사람 이야기
18. 봉성마을에 인물 난 전설
19. 어도리에서 봉성리로 지명이 바뀐 전설
20. 부저리 이야기
21. 강도령 이야기
22. 하원밧 이야기
23. 토산 뱀 이야기
24. 부저리와 금성못 이야기
25. 감외물 이야기
26. 콩데기 풋데기 이야기
27. 열녀이야기
28. 뻐꾸기 유래
29. 헛개와 도채비 이야기
30. 아기 조롬에 ᄇᆞ름 넣은 다슴어멍 이야기
31. 개미와 매미이야기
32.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
33. 젊은 남자가 젊은 아주머니를 희롱한 이야기(언어유희)
34. 막가름 못 이야기
35. 구물동의 효자 할아버지 이야기
36. 상수ᄆᆞ름 부저리 이야기
37. 하원밧 이야기
38. 구물동 못 전설
39.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유
40. 도채비 이야기
41. 토산뱀 이야기
42. 귀신이 데려갈 주식 지킨 어머니

1. 장밧동산에 얽힌 도채비 이야기


홍우경(남, 1925년생)

조사일시 : 200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홍우경(남, 1925년생, 소띠)

제보자 상황 : 이야기를 많이 아셨고,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연세가 많으셔서 발음 면에 있어 부정확 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제주 방언 특유의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시며 실감나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셨다.(* 자료 1~20 제공)

요약 : 도채비는 다리가 없다고 하는 유래.

옛날 어른들 보면은 혼 2~3m 앞의 구짝 ᄀᆞ치 걸어라. 걸은데 보면 저 아래 정강이가 없다고 <조사자 : 아, 정강이, 다리가 없댄 예?>

정강이가 이서도 악 허면(소리 지르면) 뭐 밑이 어시니까 뭐혼디 그냥 뜨리는 광대막텡이가 부러지고 칼로 요영(이렇게) 옆으로 정강이 꾀면은 제 똥 꿰멍(방귀 뀌면서) 없어진다고 <조사자 : 아아, 똥고망 없어진댄? >

똥 꿰멍! <조사자 : 아 방귀끼멍 마씀.> 난 직접 대허영 본 바가 아니고 그건 옛날 늙은 어른들이 경 ᄀᆞᆯ으난 <조사자 : 뿔이 달려수과?> 뿔 그런 걸 못보고 불만 보이고 <조사자 : 아 불만 반짝반짝> 초롱불 초롱불. 초롱불만 앞에서 보여서 그저 질걸음 걷는디 바레기 찰 정도로 보이고 게니까 그 불을 뜨리니까 막뎅이가 부러젼. 그 앞으로 그리 헨 ᄀᆞ리나네 없어져렌. 알로 알로 영 정강이 ᄀᆞ리난. 게난 알이 약한 것이 옛말이주게

<조사자 : 게믄 그 도채비는 어디에 많이 나타나신디 마씸? 아까 그 구몰동 아꽈?>

저기 저동산에 이제 <조사자 : 구몰동쪽에 동산마씸?> 나 보면(나가 보면) 저 뒷동산 이제 나가믄 보이는디 <조사자 : 거 이름 잇수과? 동산이름?> 장밧

동산. 거기서 도채비 나타난 게. 여기 저 봉성오름 표지판이 표지하는디 거기 잘 나와. 겐디 거기서 나도 거기 다 못 다 가는 거지 글루 절루 막 들은 뒤로

2. 주식 구박한 다슴어멍

조사일시 : 200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홍우경(남, 1925년생, 소띠)
요약 : 장화홍련전 내용과 같음.

부젯칩의 영감 잇는디 상처ᄒᆞ니까 새 할망을 돌아왓서. 새 할망을 돌아당에 아들을 하나 낳앗거든. 똘 오누이 신디 , 참 똘 성제 신디 아들 하나 나으난 아들 거 이름은 돌창인가 무신거엔 허연. <조사자 : 돌창이, 아들이름 마씀?> 멍청한 거주, 또 게난 돌창이렌 허연. 항시 궂인체 허멍 매일 구박허거든. <조사자 : 아, 다슴어멍이 맨날 구박헨마씸?> 거 엇에동(없애두고) 그자 이녁 난 거 하나만 돌앙 살젠 하는 거주게. 경헤도 그거 그날 저날 울멍 설으멍 사는디 한번은 어떵헹으네 이 이년을 좁ᄌᆞ앙으네(못살게 굴어서) 내처부러야겟다, 쥥일 뱃겨가지고설랑 쥐 잡앙, 쥥일 뱃경에 자리 쏘곱에 놧거든. 쥥이 거죽 뱃경으네 ᄒᆞ믄 게 손이역(손이랑) 발, 손가락 똑 사름새끼거든. <조사자 : 아아 거죽 백기믄 사름새끼 같다고> 꼴랑이 끊어 부니까 발 두 개 손 두개 영 ᄒᆞ곡 경헹 자리 아래 놧다가, 뒷날은 이날 어느 때사 이제도록 잠자느냐고 막뎅이 가져강 닥닥 두드리멍 막 빨리 일어나렌. 이 자리도 걷어서는 저리 내치라고 확 걷으니까 중이 새끼가 거죽 벗긴 게 싯거든.

"아 이년이 서방질 헤가지고서는 처녀 비바리년이 아기 밴 거 아니냐"고 경해서 영감신디 알리거든. 대감신디 알리니까,

"어찌 ᄒᆞ느냐?"고

"집안 망신뒈니까 물놀이 ᄒᆞ당 들이쳐부는 게 좋겠다"고.

경 하옵센 안헷지만 하도 강권하니까는 홀 수 어시 경 허락ᄒᆞ게끔 막 말ᄒᆞ난 아미경이나 ᄒᆞ렌 헷거든. 경ᄒᆞ니까 이제 그 바람에 그 아들보고,

"이년 아무 쇼(沼)레강 들이쳐불라"고.

경ᄒᆞ니까 돌창이가 멍청ᄒᆞᆫ 거라노니까, 그냥 등치 닥닥 두드리멍 글렌 ᄒᆞ믄 말댄 홀꺼라. 아이 가지도 못ᄒᆞ고 그냥 가야지. 가니까 거기 가가지고설랑 ᄒᆞ난

"물 바에 서렌."

"나 ᄒᆞᆫ 곡지만 말 골으건 들이치렌" 골으난.

게난 어멍 이제 그 죽어부난 거시기 헹 고생한 말, 경ᄒᆞ멍 이제 동생이나 잘 키워달라고 하간 소외 말랜 ᄒᆞ고 자락 거리밀어부난 물에 빠져 죽엇주게. 죽어부난 글진에 아시 그저 그걸 내용을 아니까 매일 울멍 이녁도 이제 살고 싶은 생각 없다고 성, 언니가 어디 간 죽은ᄎᆞ례도 모르고 무신 거 ᄒᆞᆫ디 그 아시 되는 아이는 이제 가면 입성질홀까. 요즘 말로 그 연고 골으면서 어디 강 죽언디 제대로 가갓고 질 ᄀᆞ리쳐 달렌. 경ᄒᆞ멍 가가니까 생이가 저짝 저짝앞의 나강 얼러. 얼르니까 그 생이…그때 말로 요즘 목사, 원님이 목사주게 여기서 목사고 도지사고 거 죽으니까 누가 이제 목사홀 사람이 없어. 가믄 그자 죽으니까. ᄒᆞ루도 못 살앙 그저 오늘 아침에 보면 뒷날에 죽으니까, 요즘 같으면 하간 시험이여 뭣이여 어쩌고 ᄒᆞ는데 시험홀 것도 없고 그 원님 살 사람 잇으면은 지원ᄒᆞ렌. 게니까 어떤 엿장시 닮은놈이 내가 한번 가보카. 경행 이제 지원ᄒᆞ니까, 게믄 ᄒᆞ렌. 죽을 때도 뻔히 죽는 거 알멍도 가져? 가젠 ᄒᆞ여!

그 놈은 아마도 마음이 담대헷던거라. 좀도 아이 자고 그냥 앉아서 밤 좀 뒈니까네 문을 딱 잡앗는디 문이 딸깍 열어져. 머리 허공치고 그냥 ᄆᆞ숩게 뒌 ᄒᆞ니까, 울멕이니까 일어낭 뒈싸 앉으면서

"구신이냐 생인이냐? 구신이거들랑 구신 말ᄒᆞ고 생인이거들랑 생인 말ᄒᆞ렌"

잡앙 ᄒᆞ통쳣어. ᄒᆞ통치니까

"나는 사람을 해롭게 ᄒᆞ젠 온 건 아니고 원고가 잇어서 왓수덴."

그 말 전부 역사를 말헷거든. 역사를 말ᄒᆞ니까

"거 걱정 말라고 내가 그렇게 ᄒᆞ면 내일부터 그럼 달래주켄. 다시랑 나타나지 말앙 고이 돌아가믄 내가 소원 풀어준다"고.

경ᄒᆞ니까 그냥 가불고 하믄 뒷날은 단체들이 우르르 하인놈들은 죽엇건 들러내젠 강 보난 벤찌롱이 살아둠서 큰소리만 쳐부런. 경ᄒᆞ니까 뒷날은 그듸 다 불러들일 거 아니라. 그 대감의 집에 다 곤장 때리고 처벌시켜. 물론 사형 이시니까 사형도 시켰을테지만.

3. 부저리 유래

조사일시 : 200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홍우경(남, 1925년생, 소띠)

요약 : 한 중이 넘어가다가 물을 얻어먹으러 들렀는데 한 노파가 청주를 주니 고마워서 들판에 큰 나무를 기둥 삼아 집을 짓고 살라고 하였다. 노파는 집을 짓고 주변에서 외 농사를 지는데 잘 되어 부자로 살았다는 이야기. 부저리는 부자로 산 사람의 이름.

부저리렌 ᄒᆞᆫ 건 사람 일름인디 상동서 ᄒᆞᆫ 참 반 쯤, 1km남짓 올라가면은 부저리 터가 이서. 부저리 터가 잇는디, 것도 우린 들은 말이고, 들은 말인디 아주 가난ᄒᆞ게 그때 시절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때 시절에는 이 봉성 오름에서 다 낭 베영 집 지섯수게. 곳밧, 곳밧이 됏져. 곳밧이거든. 곳밧이니깐 이 오름에서 나무베엉 집짓고 낭이야 알지? <조사자 : 예> 남방에 만들엇젠 ᄒᆞ거라. 그 때 시절에 <조사자 : 남방에 마씨?> 나무로 방에 ᄒᆞᆫ 것들 안봬나서? <조사자 : 방 때는 거 마씨 ? 나무로?> 아니게. 그 저 영영 방

에 짛는 거 < 조사자 : 방아마씨 ?> 방아. <조사자 : 아, 나무방아?> 어 그런 거 아이 봐나서 ? <조사자 : 아-옛날에 텔레비젼으로는 좀 봣수다.> 지금도 거기 관광가면 싯주 무슨. <조사자 : 박물관에 예?> 게. 그런 거 홀 시절에 거 혼자 이제 늙추룩 거기 살앗거든. 사는디 여기서 대정가는 질, 소롯질 사람 나들이 ᄒᆞ는 질 <조사자 : 아 사람이 출입하는 질~> 질이라도 너른 질 아니고 요만이 ᄒᆞᆫ 가이 줄 트멍으로 영 ᄒᆞ나들이 ᄒᆞ는 거 거든. 요즘 곳밧듸 가믄 물 들이 ᄒᆞ나들이 ᄒᆞ는 질 같이 옆으로 영 헹, 선지남도 사람 홀트곡 가고 ᄒᆞ는 질 그런 정도지. 어디 무신 그추룩 저 너름질 신 때가 아니거든. <조사자 : 옛날에 예?> 게난 봇디게 뎅기기 전 대정드레 뎅기게 뒈가지고설랑 그런듸로 출입ᄒᆞ거든. 경ᄒᆞᆫ디 거기 하르방 어디 드릇(野) 가 불고 할망만 시니까. 집이난 집 같이 뒈어서? 여복ᄒᆞ게 ᄒᆞ연 나무 거쩐에 살앗주게. ᄒᆞ니까 거기 질 넘어가당 중이 들어가당

"아 여기 강 물이나 좀 얻어먹엉 가야겠다"고

거기 가니까 넘어가당 물 그리 왕에 들어가젠 물이나 좀 달라고 ᄒᆞ니까 그 할망이 물은 아이주고 청주를 거려다네 ᄒᆞᆫ 사발 거려다 주거든. 막걸리, 청주 주니까네, 아 시장도 ᄒᆞ고 ᄒᆞᆫ디 그 거 참 ᄒᆞᆫ 방에 기 딱 떨어졋어. 그걸 ᄒᆞᆫ 잔 마시니까 기분이 막 좋안 지양용기도 뒈고 물도 아이 그립고 중이라노니까

'남의 공걸(공짜를) 공히 먹엉 뒈리'

아녀 공을 갚아야겟다고, 경헤가지고는 여기 이렇게 살면은 만나는데 어렵게 뒈겠다고 ᄒᆞ니까 나 ᄀᆞᆮ는 대로 저 터를 ᄒᆞ나 마련해 줄테니까 거기 살면은 거 잘 될거옌. 경허난 그 ᄌᆞᆺ듸서 요 밧듸 오렌. 그 밧듸 조 ᄀᆞᆺ받듸 여기서 요 나무 끗치지 말앙 그대로 요 나무 그대로 ᄒᆞ영 앞 뒷 자동을 삼아서 집을 메영 살렌. 메영 살면은 수년 내로 부자가 될꺼옌. 경ᄒᆞ곡 ᄒᆞᆫ데 하르방 와시난에 이만저만이 ᄒᆞ엿젠 ᄒᆞ는거라. 경헤영 가비엇거든. 경헹 살아보주. 경헹 살엇거든. 경헹 살앙 ᄒᆞᆫ 일년 이상 사니까 외를 나봐시믄 외를 낭 팔아봐시믄 ᄒᆞ는 생각이 들어 경ᄒᆞ니까 외를 조 ᄀᆞᆺ밧듸 그자 ᄀᆞᆯ아. 친밧ᄒᆞ멍 친밧이렌 ᄒᆞᆫ 거 곳밧 자왈 비멍 불쿼우멍 이녁 망으로 만드는 밧. 것 ᄀᆞᆯ아 진밧

이엔 ᄒᆞ여. 경헹 널리 그냥 욀 나저 욀 노니까 웨가 엄청나게 잘 열아. <조사자 : 웨는 참외? 할아버지?> 참웨산디 물웨산디 난 모르고 엄청나게 열언. 전에 다른 듸 홀 때는 하나 둘 더 아이 열엇는데, 수정 어시 그냥 막 열어 노니까 그 외 마기도록 막 타멍 ᄑᆞ니까, 시껑 ᄂᆞ려와 사름 사는듸를, 인가 잇는 듸들 내려오믄 그저 보리도 받고 접시도 받고 아무 거라도 아무것도 어시니까 닥뜨린데로 그자 받앙가믄 다 쓸거니까 주는 대로, 아무 거라도 주는 대로 받으켄. 게니까 보리도 받고 쏠도 받고 사발도 받고 접시도 받고 경 허난 그렇게 받으니까 수정이 어서. 뒷 해에 다시 웰 낫어. 웰 노니까 그 배가 자꾸 오리가니까 그 접시로 다 웨를 받으니까 은접시에 받앗져, 놋접시 받접시에 받앗댄 ᄒᆞᆫ 게 그 말이여. 그 외 수정을 전부 접시로 받아서 경ᄒᆞ니까 그게 부제지게. 부젠디 경ᄒᆞ연 살다가 저디서 절로 저 내가 터질 테니까 저 내터지거들랑 빨리 떠나불렌 경ᄒᆞ니까 머 요새에 육지 물난리 모냥 엉쳐난(엄청난) 비가 오라네 글로 생각어시 내가 터져부러서. 내가 터지니까 그 집이서 보면 아주 보기 싫게 허위 훵허게 ᄒᆞ면 보이거든. 경헤도 이리 잘 살아 지니까는 원 그만ᄒᆞ면 뒈겟지, 살아도 뒈겟지 경헤거든. 게 지금도 마찬가지 그 산을 쓰나 집을 지으나 헤도 어떵어떵 ᄒᆞ면은 사름인 이상 죽을 테니까는 거 떠나불라 영 ᄒᆞ면은 어 그 때 당ᄒᆞ믄 안떠나거든 잘 살아지니까. ᄒᆞ나 둘 죽엇으니까 더는 아이 죽을테지. 거 마찬가지로 그냥 살앗거든. 그냥 사니까. ᄒᆞᆫ 몇 해 이시니까 반란이 일어나서. 난이 일어난. 난이 일어나가지구설란, 옛날에 난이라는 것은 요즘 관청에 댕기는 사름들, 사름 못견디게 벡성들ᄒᆞ영 이 칩이 저 칩이 요 자유당시대 모양에 ᄒᆞ영으네 심어당 조짐도 ᄒᆞ고 다 받아먹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생트집 잡앙으네 쉐도 받아먹고 쏠도 받아먹고 미녕도 받고 ᄒᆞ더라는 거야. 게우 받아지면 내치고 그런식 ᄒᆞ거든. 경ᄒᆞ니까 이재수가, 이재수렌 ᄒᆞᆫ 사름이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그 때 난이 일어낫지.<조사자 : 아, 이제수의 난~> 어. 그와 같이 그 전에도 난이 시언. 게니까 난이 시니까네 그 난이 터져가지구설랑 글로 넘어가거든 그 질로 넘어가게 뒈니까 아무듸 놈이 잘산다니까 그 놈 사는듸 강 보자고 경 헹 갔거든. 글로

넘어가멍 그리가니까 걸 어떵사 알았는지 말았는지 뭐 외사 줜 받은건지 건 모르지. 외사 줜 받은 걸 테지게. 외 팔러강 아무거나 받으켄 ᄒᆞ니까 그 난꾼들 밥ᄒᆞ영 다 잘 멕여주고 다 신는데서 전부 테와서. 전부 테우니까 신 신엉 가게끔. 경ᄒᆞ니깐 거 가져오지 말제 그것을 어떤 놈이 역수를 쳐가지구설랑 큰 노릇을 해서 혁명을 일으키젠 그런 식으로 ᄒᆞ니까 그놈 게믄 알앙 처리ᄒᆞ렌 경ᄒᆞ니까 죽여부럿단 말이여. 역적으로 역적으로 ᄒᆞ연. 게난 그걸 경 ᄒᆞ믄 끝이주게.

4. 군산봉 아기장수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홍우경(남, 1925년생, 소띠)

요약 : 아들 형제가 날개를 달고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군산 금장지에 매장한 무덤을 팠더니 그 아이들이 죽었다고 함.

안덕면인가 그게, 대정, 군산. 군산봉. 군산봉은 어떻게 됏냐면 오름 두 갠디 꼭 군막친 것 ᄀᆞ치 영 헤 잇어서, 영. <조사자 : 군막친 것ᄀᆞ치?> 어. 경 헹 ᄒᆞ난 그 오름 꼭대기에 영장을 못 놓게 ᄒᆞ는 거라. 거기 사름들이. <조사자 : 영장을 못 묻게?> 오름 꼭대기에 뭘 묻게 ᄒᆞ는 것은 금진디, ᄒᆞᆫ 사름이 거기 어떵 모르게 묻언 ᄒᆞ니까 <조사자 : 아, 사람을 묻언마씨?> 어. 영장을 묻언. 뭐 부몬지 조상인지 몰라도 묻으니까네 아들 성제가 태어났어. 아들성제가 태어나니까 ᄀᆞᆯ에길 낳어. 경 헹 이거는 그런 사름이 잇어낫느냐 ᄒᆞ기에 듣고 ᄒᆞ는 말인디, ᄀᆞᆯ에기 태어나니까 이젠 물에 강 어멍은 물 질어 와야 ᄒᆞᆯ 거니까 물에 강 오랑 보면은 항시 아이가 자리를 바뀌엉 누웟어. <조사자 : 아~바로 눕히면 옆으로 눕곡 경 헷구나 예?> 아니, 동서레 머리 영 눕형 놔

두믄 반대로 누었거든. 어려부난 제대로 못 누웡. ᄒᆞ니까네 거 이상ᄒᆞ다고 경헤가지고서는 어떵 ᄒᆞ믄 그거를 알꼬 ᄒᆞ엿더니 어멍이 생각ᄒᆞ기를

"내가 물에 간다고, 요레 잘 누웡들 잠시라이? 경헹 물에 강 물 질어 오마이?"

경헤 놩 걸으멍 ᄒᆞ니까. ᄒᆞ영 눕젓거든. 눕젓는데 가는추룩 헹으네 오란 창구멍으로 영 헹 보니까니 아니 이놈들이 일어난게 오전엔 그 공장에강 부트고 저 공장에 강 부트고 훈련연습을 ᄒᆞ는거라. <조사자 : 누가 마씨?> 웨 그 장수로 난거지, 장수로. <조사자 : 그냥 에기가 아니라 장수로 난거구나예?> 어. <조사자 : 엄마 물질 헹으네 딱 들어가서 훔쳐보난 그 에기가 어떵?> 머리를 바뀌언 누워서. 동쪽에 눕져놓으민 서쪽에 머리ᄒᆞ고 서쪽에 놓으면 동쪽에 머리ᄒᆞ고 경ᄒᆞ여. <조사자 : 그래서 몰래 보니까 막 에기가 보난 힘이 넘쳐마씨?> 경ᄒᆞ니까 거 장수를 난거지게, 장수. 거 날개 돋은 장수로 게니까 이거 큰일낫젠 ᄒᆞ여. 경 헤노난에 소나의 오라시나네 걷고 뭣헤나니까 그 산에 강 파부러야겠다고 게 산을 파부난에 다 죽어부렀지. <조사자 : 죽어부렀다고마씸? 둘다?> 그 산 연기가 난디 강 뭘 파. 피 같지 아니헌디 막 장성헤시믄 모르지만은 ᄀᆞᆺ 난 때 거시기ᄒᆞᆫ 거라 그 탓으로 ᄒᆞᆫ 거난 강 파부난에 죽어분거지. 거 웨 경헷냐면 역적으로 몰리카부덴. 역적으로 몰령 집 망한다는 거라. 역적으로 몰려, 옛날에는 경 ᄒᆞᆫ 때 역적으로 몰리면 그 집은 뭐 사돈에 팔촌까지 처영당ᄒᆞ카부덴.

5. 토신(뱀)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홍우경(남, 1925년생, 소띠)

요약 : 처녀가 잠을 자는데 뱀이 변한 남자가 와서 자고 간 후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장수가 될 상이었다. 어렸을 적부터 서당에 다녀 공부를 하고 장원이 되었지만 아버지를 찾고 싶었다. 어머니에게 콩을 볶아달라고 꾀를 내어 어머니가 콩을 볶는 사이에 베수기를 숨긴다. 콩이 타니까 손으로 그것을 저으려고 할 때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누르고 아버지를 찾겠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말팡돌 아래 살던 뱀이라는 정체를 알려주었다. 제주도 왕이 되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들을 무찌르고 방어하였다. 하지만 아기업개를 성 안에 들여놓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였다.

책에 나온 말 ᄒᆞ면은 천지차이라. 거기 우리들은 말 보믄 항시 옛날로 ᄀᆞᆯ앙 들은 말인디. 옛날에 그 ᄒᆞᆯ어멍 아들 잇는디 글청에 보냈거든. 글청은 이제 한문, <조사자 : 아, 글 배우는데 마씸?> 어. 그걸 글청이렌, 옛날은. ᄒᆞᆫ디 거기 강 ᄒᆞᆫ 예다섯 술 낫는디 아이들이 자꾸 놀리거든. 거 장수가 뒈젠ᄒᆞ면은 이제 거 고정ᄒᆞ질 안ᄒᆞ는거야. 요즘이나 저제나. 요즘도 고정ᄒᆞᆫ 사람은 장수가 못 되여. <조사자 : 고정ᄒᆞᆫ 사람?> 마음이 정직ᄒᆞᆫ 사름은 <조사자 : 아~착한 사람은> 장수가 군대에서라도 높은 지휘관에 ᄃᆞᆯ라믄 벌써 어릴 때부터 중임이 틀려. 거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은 무지헷다는 거라. 경 헤야 장수되면 틀리면 사람도 잡앙 갈겨불고 경헤야 장수노릇 ᄒᆞ지. 경 안ᄒᆞ믄 어질믄 나무령으네 든질 안ᄒᆞ여. 게니까 부지불 헷던거라. 부지불ᄒᆞ고 좀 포악ᄒᆞᆫ 말이지. 모다들언 에에 저 호로자식, 에비없는 호로자식, 자꾸 경 ᄒᆞ거든. 경 ᄒᆞ니까네 힘이 장사고 경 헷지마는 건 틀린 말이 아니라노니까 별 도리가 없거든. 에비 어신 게 확실ᄒᆞ니까. 자기도 에비도 모르고 ᄒᆞ니까. 거 죽여불도 못 ᄒᆞ고 부에가 막 나. 부에가 막 나서 어멍신디 물으니까네 모른덴 ᄒᆞ멍 노시 ᄀᆞᆯ질 않에. ᄒᆞᆫ번은 나 오늘 장원헷수다, 시험에 글청에서 장원은 15일에 ᄒᆞᆫ 번이나 ᄒᆞᆫ 둘에 ᄒᆞᆫ 번이나 밑글을 외우는거지. 외우믄 졀믄아가 불르믄 책을 전부 그냥 시험지 거두듯 걷어와, 급서가. 거두왕 선생신디 아져왕 볼라믄 그 책 보멍 책의 이름 보멍 호명ᄒᆞ거든. ᄒᆞ면은 몇 발 밧것듸 강 꿇려. 꿇리면은 아무데고 영 ᄒᆞ면 글을 잘 외운 사름은 그 대목만 두 자 석 자 ᄀᆞᆯ으면

은 글로 시작헤서 좔좔좔 읽어. 경훈디 못ᄒᆞ믄 그거 무슨말인지 들으민 갑갑ᄒᆞ거든. 경헹으네 그 날 일등ᄒᆞ면 장원. 헤서 우리 뎅길 시절에는 댓노지 두 장 큰큰ᄒᆞᆫ 거. 영 들렁 왕 우리집에만 ᄒᆞᆫ 거 두 장 주어.

두 장 주고, 게면은 집의 강으네 말ᄒᆞ면은 콩 볶아당으네 이제 또 뒷날은 그 학생들신디 전부 앞에 책 놓으난 책드레 ᄒᆞᆫ 웅큼 비와. 비우면 거 주워먹고 경 ᄒᆞ주. 경 ᄒᆞ는게 장원인디 장원헤시난 콩 볶아줍서 콩 볶아줍서. 거 어쩔 수 어시 어멍이 콩 볶으젠 출련에 콩 볶앗더라. 게니까 불사르멍 콩 볶으멍 젓으멍 영영 ᄒᆞ는디 과닥 과닥 과닥 그거 콩이 튀어가거든, 볶아젼.

"콩 캉으네 콩 젓읍서, 콩 젓읍서."

그 베수기를 오꼿 곱져부러서 이놈이. 배수기 베수기, 젓는 거 젓는 거. 젓는 낭 가지. 그 영영 젓는 거. 그 놈을 곱져부런. 일부러. 젓도 감춰부런

"아이고 요디 베수기 어디갓니 베수기 어디갓니."

"손으로 젓읍서게 손으로, 막 캄수게. 손으로라도 ᄒᆞᆸ서."

경훈디 곱져부럿지게. 못찾게 헨. 경ᄒᆞ난 아 이제 그 어멍은 콩을 못 보까 가지고 내가 팡팡 나가니까 이제 급ᄒᆞ니까 손으로 젓을라고 자꾸 후리니까 손으로 젓젠 영 ᄒᆞᆫ 거라. 이거 꼭 누르떠

"아방 어디가시니."

경ᄒᆞ난 손을 지져 버리니까네 뒈는대로 굴아분거지. 저 물팡 둘드레 가보라 경헷주게. 그 원인은 어떻게 뒈엇나면 홀어멍ᄒᆞ고 사는디 자꾸 누게가 오란 누웟당 가는거라. 밤에. 왓당 가니까 문을 좀가봐도 밤에 홀렁홀렁 ᄒᆞ면 문이 열어지고 딱 ᄇᆞ름에 열어지지 뭇하게 돌쩌귀 영, 코 영 ᄒᆞᆫ 건디, 이레 낭가지 딱 ᄆᆡ부럿거든. ᄆᆡ부니까니 확 헹 해도 그 문 안 열어줘도 사름이 들어와서 뉫당가거든. 아니 이거 뒷날 조사헤보니까니 창고망 터진 거밖에 근거가 없는디 원 이게 궁상이라고 경헤가지고 그 옆에 연구ᄒᆞ기를 쥥이가 들어왓는지 뭐사 들어왓는지 거 사름으로 변색했는지 모르니까 참실 멩실을 헤가지고서 코 영 헹 멘들안 창구멍에 영 헹 놧거든. 경헹 뒈잇엇거든. 경헤부니까니 멩실은 막 진거고 아이 그날도 제법 보난 뉫당 가거든. 아 뒷날은

보니까니 참실이 끄다갓어. 끄다간 그 참실 따라가멍 보니까니, 물팡은 알아? <조사자 : 물팡?> 어. 물팡. 그 옛날에 큰 돌 옆에 동그런 거 걸치게 헷던거 싯잖어. <거 물 메달앙으네 곡식 빻는 거 아니꽈?> 어 그거. 집을 짓엉으네 그거 헷거든. 경ᄒᆞᆫ디 그 팡돌 아래 실이 들어갓거든.

"아 요것이 요놈인가 보다."

경 말헨. 뭐 나 서방이 팡돌아레 싯젠 ᄀᆞᆯ을수도 엇고. 경했는디 그 아기는 베어졋거든 거. 거 나난 열댓 살 난 그거주. 글청인가 무시것가 ᄒᆞ는. 그 근거로 이제 팡돌 아래를 ᄀᆞᆯ앗거든. ᄀᆞᆯ으니까는 이놈이 장수로 나노니까는 어릴 때부터 그자 칼싸움을 들고 ᄒᆞ는거라. 어멍 ᄒᆞ는디. 칼을 막 영 헤가니까니 치레헤서. 장검, 장검으로 치레헷다가 ᄒᆞ여 보멍 ᄒᆞ여 보멍 헷다가 낮으믄 다시 ᄒᆞ고 다시 ᄒᆞ고 ᄒᆞ멍 두 해째는 간에 그 울아방 물팡돌 아래 잇다 ᄒᆞ니까니 어떻게 생긴 놈인가. 그 놈을 간 확ᄒᆞ게 들어 쳐시니까니 불끈 일어났어, 돌이. 게난 뒈싸져서. 물팡돌이. 물팡돌이 그거 저 방에 경 둥구는거 올려 논 판이주게, 바닥. 그레 큰 구렝이가 잇거든. 게 이것이 우리 아방이냔 말이냐고, 난도로 막 지어부럿거든. 경헤부니까니 이제 왕노릇 못ᄒᆞ고 지레 죽은 거지, 죄로.

ᄒᆞ니까 그것이 그냥 구렝이가 아니라 토신이라, 제주도. <조사자 : 토신~> 어. 토신이난 토신에서 거 사람으로 변색헤서 경 거 홀어멍신디 출입ᄒᆞᆫ 거주게. 경ᄒᆞ난 그 영ᄒᆞᆫ 몸에서 나노네 이게 장수가 뒌 거주게. 경ᄒᆞᆫ디 그 축 헹으네 그게 커난 독장거려가지고 제주도 도민을 전부 집합시키면서 영웅질을 헷거든. 영웅질을 ᄒᆞ니까니 거기에서 영웅질을 헤가니 이제 왕이 뒈. 왕의 오른 후젠,

"이제 나말 들으라. 이제 나 말 들음만 ᄒᆞ믄 잘 살어질 것이고 못견디게 아이 굴거라"고.

경ᄒᆞ니까 그렇게만 ᄒᆞ만 좋덴ᄒᆞ고 하, 이 들엉으네 어떵 거식ᄒᆞᆫ 놈은 ᄀᆞᆯ겨불고 경ᄒᆞ니 아이 들을 수 이서? 이놈은 누가 쏘든 칼로 찌르든 들어가질 들어가질 않아. 비늘돋앙. 경ᄒᆞ난 그걸 이제 거 항바드리 토성을 전부 거, 거

이 담아놓젠 ᄒᆞ엿어. 그 때 벡성들신디 담아노렌. 담아노렌 ᄒᆞ연 그 토성이 된거라. 그 안에 집 짓엉 살멍. 무게집 헹 짓어 살멍. 경헤서 백성들 구실 ᄒᆞᆯ 거거든. 겻자 일년에 제 닷되라. 제, 불체. 불체라고 아주 좀진좀진ᄒᆞᆫ 혜영 ᄒᆞᆫ ᄀᆞ를 게. 그런 거. 그냥 뭐 검질이나 소란ᄒᆞᆫ 거 아니고 뭐 숯 화리옛 제 같은 거 그런 거. 그런 거 제 닷 되씩 박앙 거 도민이 구실이 그거여. 경ᄒᆞ면은 한나라에서 장수들이 그 배타고 들어오라건 들어오믄 전부 이제 보초 세왕으네 망보라. 보초 세왕 망보는데 보초 상으네 헷당 그 배가 헤엉 ᄒᆞ더라 영. 한나라 배는. 저 물ᄆᆞ를, 물이옌 ᄒᆞᆫ 건 여기서 베리믄 물은 바당 그 마지막 하늘 붙은 거 잇지 안허여. 거기 들어사면은 벌써 혜영 ᄒᆞᆫ 게 베이거든. 베이믄 여 배 들어왐젠. 경 신고ᄒᆞ면은 그 어른이 나오랑으네 좋은 물 준비해 놔 두난 물 안장 지워그네 토성 안 전부 제를 싹ᄒᆞ게 뿌려, 전부. 거기 바닥을. 바닥에 뿌리믄 물 총지에다가 물 꼴리에 빗차락을 돌아메영 물탕으네 ᄒᆞᆫ 몇 번 감장돌면은 그 구둠이 팡팡ᄒᆞ잖여. 게면은 그게 부술로 제주도 전역이 으남이 둠뿍 져부러. 으남 둠뿍 ᄒᆞ멍 알지 못헹으네 어디로 들어갈 지 못들어가켄 가불곡 가불곡 경 ᄒᆞ거든.

경 ᄒᆞᆫ 건디 ᄒᆞᆫ번은 들어강 좀자민 석돌 백일을 좀 자. 경 ᄒᆞ니까 ᄒᆞᆫ번 좀 자멍 좀 자레 들어가멍 지장밧듸 이때던ᄀᆞ라, 지장밧듸 상이(생이=새) 심ᄒᆞ게 앚이니까 그 안에 토성 안에 지장밧이 셔나서. 거 아기업개 ᄃᆞ가리ᄀᆞ라

"늘랑으네 뱃깃듸서 새 ᄃᆞ리렌."

ᄒᆞ연 들어가부런. 문 좀간 들어가부러. 경ᄒᆞ난 아기업개는 약올른거지. 약올란 ᄒᆞ는디 그 문 좀간 들어가부난게 신고도 ᄒᆞ지 못ᄒᆞ고 거니까는 거 한나라 장수들이 배 탄 들어왓거든. 들어오란, 그디 오란 요리 돌아보니까네 도저히 이건 지집아이 새끼 ᄒᆞ나 심 뿐이지 ᄒᆞ나토 어서. 무쇠문에 무쇠집, 무쇠문헤연 탁 ᄒᆞ게 허여부니까니 들이동겨봐도 꼬떡도 안혀. 게니까 그 지집아이가 상이 ᄃᆞ리멍(새를 쫓으면서) 상이 ᄀᆞ라 말 ᄒᆞ는건디

"요새 저새 놈의 지장밧 드난 판단ᄒᆞᆯ 줄 알지. 거 무쇠문은 ᄃᆞᆼ이기를 ᄃᆞᆼ여도 율지 못 ᄒᆞ는 문, 숯 열닷섬만 ᄒᆞ영으네 모영 두일뤠 열나흘만 불미로 불

엄시면은 지들이 웨 아이 카느냐고 지들이 녹으믄 ᄒᆞ여 질건디 오망창ᄒᆞᆫ 상이들이옌."

아 그 말을 들으니까는 아이 그거 뒈엇다고 경 헤가지고 거기서 얻언 벡성들ᄒᆞᆫ티 숯 멧말썩 모이렌. 거 뭐 요즘 여기서 뭐 공산당이 쳐들어왕으네 헤도 들어오믄 ᄒᆞ여도 아니 들어온 땐 이거니 저거니 ᄒᆞ당도 들어오랑 그 지경 뒈영으네 ᄒᆞ믄 뭐 돈모이라 쏠모이라 ᄒᆞ믄 아이 모여져? 그와 마찬가지로 숯 ᄒᆞᆫ 가마썩 모연 ᄒᆞ난 열나흘 불 작정헹으네 불 거런 ᄒᆞᆫ디 ᄒᆞᆫ 일주일 뒈난 막 거의 무쇠문 거두리가 그 고망드레 들어가는거. 그디간 녹안 ᄒᆞ난 자락자락 씨러젼. 씨러지난에 들어간 보난에 예펜은 참기름 불란 머리 빗엄고 거 장수는 눤 자당에 문 씨러지는 소리에 깨어난 보난 그 지경 당헷주게. 경ᄒᆞ난 백장우에 칼 봇단에 칼로 예펜 잡아 ᄀᆞᆯ겨불고 자기난 나오란 아이 가이 발모가지 심어네 그 토성에서 알르레 잘락 뛰멍 내가 죽어불면은 나 죽으면 나 벡성들 게꽝낭도 구실을 ᄒᆞ게 된다고 아이는 빌레레 딸 들이데겨부난 난 보진 안헤신디 경 ᄒᆞᆫ 빌레가 싯젠 ᄒᆞ여구나. 거기 물나는 디. 그 빌레가 벌겅ᄒᆞᆫ 빌레가 싯젠. 게난 그 아이 피 부뜬거라. 경헤도 것도 경ᄒᆞᆫ 말이지만 경헤든 이녁은 이제 바당드레 이녁 끼리 앚았던 방석을 바당물드레 휙 ᄒᆞ게 데끼니까니 바당물에 가난 거기간 방석우에 간 앚으난 아 이제 거 한나랏장수들이 간 죽이젠 가봇자 칼을 훈들러봇자 칼이 들어가질 안ᄒᆞ여. 들어가질 안ᄒᆞ여 장수 ᄒᆞᆫ 놈이

"경 말앙으네 널랑은 벌 뒈라. 게믄 날랑으네 장수 칼을 쓰켄."

게난 경헹으네 ᄒᆞᆫ 놈 벌 뒈연 귓구멍에 '엥엥엥' 헤가니까 자꾸 영영 ᄒᆞ여가난. 경ᄒᆞ난 그 비늘이 거시러져. 그 비늘 트멍으로 칼로 ᄀᆞᆯ기난 그 때 죽엇젠 ᄒᆞᆫ거주게. 경헹 제주도 ᄎᆞ지헷젠 ᄒᆞᆫ거라. <조사자 : 게난 그 뱀이 영물이구나 예?> 베염이 이게 제주도 토신이랏주, 토신. 게난 이런말도 책엔 그런 문제가 잇다고 나왓는디 이런 말을 ᄀᆞᆯ으면은 그 쓸데기 어신 말 그런 말 거 들어졈젠 경 ᄒᆞᆯ거주.

6. 헛개와 도채비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홍우경(남, 1925년생, 소띠)

요약 : 도채비는 선, 헛개는 악으로 나타난다. 아버지가 밤길을 걷다가 앞에서 헛개가 밭담을 쌓고 있다. 아버지는 얼른 쫓아가서 보니 아무 것도 없어 속았다. 헛개에게 속으면 병이 걸린다고 한다.

헛개가 도채비 ᄀᆞ튼 거주. 도채비는, 도채비도 ᄒᆞᆫ 둘이 아니지마는 도채비는 사름의 온정으로 좋은 사름 온정으로 된 거고, 헛개는 아주 깡패나 불량자 그런 사름으로 된 거라 말이여. 도채비는 사름을 좋게 허져 하는 것이 도채비고. 헛개는 인제 누가 위할 사름도 엇고 불 밝형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사름을 골리젠 허는 것이 목적이라. 경허난 헛개주.

헛개믄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ᄆᆞᆯ 타레 댕기다가 밤 질을 걷게 되는디 어떤 놈이 앞의 오다가 기냥 밧이 돌 이신 밧이난 담을 앗앙 톡톡 싸거든. 경허니까 그 헛개 생각에는 이제 내가 영 허민 저 놈은 어떵 생각헹 속으리라는 것을 알아. 하니까 아 요건 누게 우리 ᄆᆞᆯ을 갈취헤 간 놈 아닌가 생각했거든. 그런 생각 헤서

"ᄒᆞᆫ저 ᄋᆞ라그넹 뭣 허젠 그 담 들어불젠." 경헹으네 ᄋᆞ랑보난 아무것도 엇어. 아무것도 엇이난 헛개헌테 속으믄 아프는 거라. 속으믄 아프는 거.<조사자 : 아~속아버리면. 게민 헛개에 속아서 아팟던 사람 잇어난마씸?>우리 아버지가 경헤나고렌. 경 헹 속아나부런. <조사자 : 게믄 도채비보다 나쁜거구나예?>도채비보다 나쁜 거주게. 헛개는.

7. 김통정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홍우경(남, 1925년생, 소띠)

요약 : 김통정은 영웅이었는데, 벌을 쫓으려고 팔을 드는 순간 열린 비늘 틈으로 한나라 장수가 칼을 쳐 죽었다.

그 사름은 힘도 워낙 쎄난에 집도 무쉐집에서 살곡 무쉐문 달앙 살아서 문 잠그지 않으면 코 안트레 숨 쉬면은 문이 더꺼지고 바껏테 쉬면은 열어지고 헷주게. <조사자 : 김통정이?> 응 저 칼로 질러도 들어가지 안헤연 비늘 돋으난. <조사자: 비늘 돋안 마씨? 몸에?> 응 비늘로 궤기 비늘을 탁 더꺼지난 칼이 들지 안헤연. 경헹으네 말은 뭐 촘웨(참외) 뒈영 ᄒᆞᆫ 사름은 촘웨 뒈고 ᄒᆞᆫ 사람은 벌 됏젠. 그리고 벌이 뒈가지고 ᄒᆞᆫ 사람은 귓 고망에 앵앵앵앵 ᄒᆞ니까 이젠 자꾸 귀듸 자지거든. 겐디 영영영(손으로 귀부분을 저으면서) ᄒᆞ다 보니 이게 들러젼. 그 틈을 봐서 칼 ᄒᆞ니까 한나라장수가. 게난 죽었주게.

8. 구머리와 등게왓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홍우경(남, 1925년생, 소띠)

요약 : 온 몸에 비늘과 날개가 돋은 장수가 경기 시합에 나가서 적의 목을 베었는데 다시 붙곤하였다. 장수의 아내가 재를 치마에 담고 갔다가 남편이 적의 목을 베자 재를 뿌려 적을 퇴치했다.

구머리는 거북이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거북이 형체란 거여. 옌날 지리보는 사름이 뒤의 밧이고 동네고 마을이고 그 형태 보믄서 말해준 거지. 근데 그 거북형태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기 져 동산이 등게왓이라. 등게왓이 뭐넨 ᄒᆞ믄 게 등때기라는 말이여. 게 등때기. 깅이. 등게왓 등게왓.

몇 천년 전에 굴은 말이주마는 장수는 다 날개 돋안. 날개 돋곡 비늘 돋곡. 영 ᄒᆞ영 옛날에 시합이 잇어낫젠. 요즘 경기시합 모냥에. 시합이 이시니깐 인제 노피 뛰는 것이 상수라. 노피 뛰어그넹 칼싸움 ᄒᆞ는 거. <조사자 : 그게 최고?> 게난 경ᄒᆞ연 심이 부족ᄒᆞᆷ을 ᄒᆞ믄 ᄒᆞᆫ 읏이 높게 못 오른다 이거라. 높이 못 오르민 우에 타 앚인 놈이 칼 사용ᄒᆞ는 게 좋거든. 게난 모가지 떨어지며는 경헤도 ᄂᆞ려오랑 다시 떨어지민 몸이영 떨어지민 (다시) 뻬가 부뜻뎅 ᄒᆞ는거라. 피가, 피가 엉기어도 경 허여 노니까, 그 노피 뛰는 장수 각시가 항시 치마통에 제[1]를 퍼가지고 담어서 ᄀᆞ려대니까 자기 서방이 아니면은 제 탁 거 그냥 그 앞치마엣 걸 비와부러. 비와불믄 부뜨정 해도 부뜨지 못했다.

9. 봉성리 지명 유래

조사일시 : 200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홍우경(남, 1925년생, 소띠)
요약 : 봉성 지형은 어디로 보나 새 모양이라는 데서 유래함.

게매 그 지리를 보는 사름말로 옛날에 어도봉이옌 헷주만은 지금 봉성이옌 ᄒᆞᆫ 것이 그 봉황새에 형체옌 경 지은 거거든. 겐디 이 오름이 어듸로 갓던지 보면 새 형체랜 ᄒᆞ는 거거든. 데가리 잇곡 북으로 가나 남으로 가나 서로

1) 재(灰)

가나 동으로 가나 똑 그대로거든. <조사자 : 게난 봉성이구나예?) 응.

10. 세 자매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홍우경(남, 1925년생, 소띠)

요약 : 자신의 복에 산다고 한 셋째 딸이 가난한 마퉁이를 만나 그 복을 확인하는 삼공본풀이 내용과 비슷함.

다섯 식구가 사는디 잘 살아져서 비가 오니까 심심ᄒᆞ고 뭣 ᄒᆞ니까 오라서 한 번 꼰(고누)이나 둬보자고 꼰이엔 ᄒᆞᆫ 건 장난치는 거여. 농담 비슷ᄒᆞ게 ᄒᆞᆫ 말이지. 은전아기, 놋전아기, 가무전아기 이렇게 이름을 지왓거든. 뚤을. 헤서

"은전아기 이리 오라보라"

ᄒᆞ연 예, ᄒᆞ영 오니까,

"넌 누게 덕에 먹고 입고 사느냐?"

ᄒᆞ니까 그 뚤 말이

"아바님 덕택이우다. 어머님 덕택이우다. 어, 거 내 뚤이 적실ᄒᆞ다. 다음에 샛뚤 불렁으네, 놋전아기 이리 와보렌 ᄒᆞ난 그 추룩 물으시난, 그것도 그추룩 말ᄒᆞ거든. 아 거 내 뚤이 적실ᄒᆞ다.

"가무전 아기 이레 와보라."

내려오난에,

"넌 누게 덕에 먹고 입고 사느냐?" ᄒᆞ니까

"난 아방 덕도 아니고 어멍 덕도 아니우다. 어떵헹 사느냐 하믄 나 베똥아래 선금 덕분에 삽니다."

겡 기분이 나쁘거든.

"이년 아방 덕도 엇고 어멍 덕도 엇고 베똥 아래 선그믓이 덕이노랜 ᄒᆞ니 깐 이년 저 집박드레 네쳐불라고 잘 사는지 보켄. 어멍 아방 바꼇듸 나강 잘 사는가 보켄."

경허니까 전혀 빈 손에 내칠 수 엇고 잇던 짐을 다 출령 ᄒᆞ곡, ᄒᆞ난 게난 나갓주. 저냑까지 헹으네 어제 오늘 ᄒᆞ루 먹을 양식 ᄒᆞ져 쌍 줘불렌. 경헹 쌍 주니까 여지없이 마탕으네 기어나거든. 항복ᄒᆞ카부덴 ᄒᆞ난 항복을 안혜연. 기어난. 빨리 저 가당 가당 그 어듸 중국 땅 가가지곤 ᄒᆞᆯ 수 엇이 걷당 보난 걷당 봐도 사람들 뭐 이추룩 싹싹ᄒᆞ는 시대가 아니난 ᄒᆞ나씩 보이는디, 헤저물어가는디, 여복ᄒᆞᆫ 막살이 ᄒᆞ나 이시난 거기 들어강 보니깐 늙은 할망 ᄒᆞ나만 시어렌. 질 가던 사름이 말헤줜. 들어갓댄.

"집의 ᄒᆞ룻밤 뉘영 장 가쿠덴 ᄒᆞ니까 당췌 아니 된다고 이젠 나그네 모실 형편도 아이뒈고, 양식도 없고, 또 그런 지집 아이 못 모신다고 이제 우리 마퉁이들 들어오면은 좀잘 수 엇댄."

경해도 어쩔 수 없으니깐에 그 밧겻딜 누어도 . 그런 생각 헤영으네

"아무데도 좋고 안혜도 좋고 뭇둥에라도 그냥 앚았당 가쿠댄." ᄒᆞ난 게난 뭐,

"몰라 난 몰라."

경헹으네 아들들 오난 밥 아이 주고, 아들 자는 디 남걸랑, 경헹으네 날이 저물엇주게. 우당탕탕 ᄒᆞ는 소리가 나난

"저건 누게 소리꽈?"

"그거 우리 큰 마퉁이 둥글어 오는 소리우다."

"어딩 갓당 이제 오는거꽝?"

"마 파레."

아 이제 들어오란. 그냥 ᄆᆞ숩게 들어오거든. 우당탕 우당탕 ᄒᆞ게끔 덩치도 좋고 겐디

"아 이거 어떤 손님이 이거 집안에 들어 앉안고? 우리 누울 듸도 엇엉 ᄒᆞ는디 우리 먹을 것도 엇엉 ᄒᆞ는디"

아 그냥 막 구박ᄒᆞ는데 거 어쩔 수 엇거든. 그냥 그저 앚앙 존뎐. 뭇둥에 앚

안. 조금 시난 셋 마퉁이가 그추룩 헹 들어왕 그것도 또 그 모냥으로 굴아. 다음은 또 소리난. 거 우리 족은 마퉁이 둥글어 오는 소리. 족은 마퉁이 들어오난.

"하따, 이거는 어떵헹 아가씨가, 아가씨가 와신디 처녀사 완디 몰라도 안트레 드러누곤 우리 집의도 사름 들어올 때가 싯고 거 참 별일이여 별일이라."

"아 이젠 이젠 살앗구나."

큰 마퉁이는 자기가 파온 것을 잘 숣앗는디 큰 마퉁이 놈 들어오니깐에 자기 그 파온 마를, 대가리는 어멍 주고 그 다음은 지 먹고, 그 다음에 꼴랑이. 셋 마퉁이도 뭐, 그 모냥. 족은 마퉁이는 경 해 가난 대가리는 지 먹고, ᄒᆞᆫ 도막은 어멍 주고, 또 그 다음 건 이제 그 나그네 줫거든. 주곡, 양 끗은 지 먹어.

"요 마퉁이 산디, 총간 산디 이게 사름이로구나."

다음엔 자기 가져간 쏠로 밥이나 행으네 먹어 보잰 주인도 주곡 먹어 보잰 ᄒᆞ연. 경헹 밥헤보젠. 막 마 파멍 거시기 ᄒᆞ난 궤로완 굽어졍들 막 자는거라. 이제 부엌에 강 솟뚜껑 열언보니깐은 생전 솟 씻지 안혜영 그저 그듸서 그냥 그자 숣앙 먹어낭. 다시 또 뒷날 경ᄒᆞ고 그듸 막 혹 떨어져 놔네 흠치 혹이 하나 ᄀᆞ득. 그 다 퍼내뒁에 그걸 씻젠 ᄒᆞ니까 끈적끈적 ᄒᆞ멍 씻질 못허여. ᄒᆞ니까 할망신디 강 일령으네(잘자는 할머니를 깨워서)

"여기 삼수세[2] 이수광?"

ᄒᆞ니까 요 뒷방에 싯젠. 강 보면 핫젠. 뒷방에 넘어가 보니까 이게 뭐 얽어져 터져서 농사 아이 지언, 거 그냥 내부난 그거 핫주. 그거 가져당에 그자 빡빡 씻엇어. 판찍 씻언에 쏠 놩 곤밥 헹으네 큰 마퉁이안티 상 출령 들렁 강, 자는 거 이제 독닥영으네, 밥 먹어보렌 ᄒᆞ난 지꺼졍 고맙댄 ᄒᆞ카부덴 ᄒᆞ난, 일령 독닥이멍 헹 일리난, 홀 수 엇이 일어낭 영 뵈려봔.

"우리 이런 버렝이 밥, 조상도 먹어보지 안헷다."고

셋 마퉁이에게도 출려서 주거든. 그것도 그추룩 굴아. 족은 마퉁이 신디 강 일려 보난,

---

2) 한: 삼-덩굴.

"하이고, 이거 세상에 원 조상 적에도 못 먹고 먹어보지 못 ᄒᆞ는 거 음식을 이거 오늘 먹게 됴니까 고맙댄."

경ᄒᆞ난, 그저 게난 힘껏 먹어보난 어멍 그 할망도 대접ᄒᆞ고, 아 이제 밤엔 어디서 생각 생각 헹 보니까 '요 사름이 제일 복 신 사람이로구나.' 요렇게 생각혠. 뒷날은 다시 마 파레들 가젠 출리난 나도 강 구경ᄒᆞ켄 ᄒᆞ난 큰마퉁이와 셋마퉁인 구경 ᄒᆞ든 말든 우린 우리대로 가는거난. 족은 마퉁인

"경 ᄒᆞ라고 ᄀᆞ치 글렌."

강 큰마퉁이신디 강 파난디 강 ᄀᆞ리치랜. 큰마퉁이신디 강 보난 늙엇퉁이가 아기싼 벌써. 다음은 셋마퉁이 파난 디 ᄀᆞ리치랜. 강보난 물게 똥을 싸서 조끔 나은거. 족은 마퉁이신디 파난디 ᄀᆞ리치랜. 강 보니까 금을 그자 금이여 돈이여 그자 막 캐어 오란. 해서. <조사자 : 아! 보석들?> 응. ᄒᆞ니까 아 이걸 일구라고 아 이거 뭣 허느냐. 아 이거 잔말 말고 나 말만 듣고 줏엉으네 ᄒᆞ믄 잘 살게 될 거옌. 그걸 심북ᄒᆞ게 줏엉 장에 강 풀안에 돈도 많이 받고 사지구정(사고자) ᄒᆞᆫ 것도 다 사고 막 잘 살앗더라. <조사자 : 게믄 셋째가 제일 낫구나예?> 응. 경ᄒᆞ난 벳똥 아래에 선 그뭇 덕택이주게. 경ᄒᆞ니까 일찍이 어멍 아방은 어떵 헷느냐?고 ᄒᆞ니까 잔칠헹 보니까 어멍 아방 셧젠. 강 보난, (부모가) 사는듸 강 보난에 떠나간 때가 옛날이고, 줌방이 풀만 덤방헤 누게 아는 사름도 엇고 '어듸 가멘' ᄒᆞ고 ᄀᆞᆫ는 사름도 엇고 잔칠 한다고 심청이 모냥에 잔치를 헷거든. 잔치를 백일 잔치를 헤니깐 말짱하게 소문들으멍. 그 감을 잘 멕이는듸 싯젠ᄒᆞ난 요새 서울 바닥에 국수 먹으레 가는 거 모냥에 소문들엉 모다 간 거지. 모다 가난 간 거 보난 다 그것들 어멍아방이영 성들이영.

11. 힘 센 장사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6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홍우경(남, 1925년생, 소띠)

요약 : 힙센 장사가 목동으로 살면서 소 한 마리를 혼자 잡아먹곤 했는데, 한번은 조를 지키라 했는데 혼자만 보냈더니 웬 도둑이 돌로 그의 머리를 쳐 죽어 버렸다.

옛날에 그 빌 없는 사름이주. 아무것도 모르고 그쟈 먹음만 먹고 ᄒᆞ는 사름. 심 쎙 짐 하영 지곡. 경ᄒᆞᆫ 사름이 셔낫젠 ᄒᆞᆫ 거주. 셔난 그 쉐테[3]ᄒᆞ는 집이 쉐테 우리로 살면서 시장ᄒᆞ거나 궤기를 그리우나 ᄒᆞ면은 송아지 하나 심엉으네 자왈[4]자리에 낭가지들. 삭은 낭가지고 낡은 낭가지고 모여 놩으네 불짓엉 자기 혼자 송아질 심엉 불을 지쳐. 경헹으네 구어지믄 틀엉 먹어낫젠 ᄒᆞᆫ 거주. 경ᄒᆞ난 장사엔 ᄒᆞ는 말이주. 별다른 게 장사라? <조사자 : 심이 쎄긴 쎗구나 예?> 심 쎄난게 송아지 혼자게, 다간 송아지[5] 하나 꼴랑이 심엉으네 그냥 잡아 들렁으네 불르레, 오죽 ᄒᆞᆫ 심이가. <조사자 : 게믄 이 마을에도 장사 잇어 낫구나 예?> 그런 장사사 그걸 장사라고 ᄒᆞᆯ 수 이서? <조사자 : 게도 쉐 ᄒᆞᆫ 마리 잡을 정도면 진짜> 장사사 장사주만은 경헹으네 쉐테ᄒᆞ난 농사가 좋아. 쉐 오줌 싸곡 쉐 받앙 헹으네 쉐똥싸곡 ᄒᆞ난 농사가 워낙 좋아나난 좋으난 옛날은 하도 어렵곡 무시거 헤 노니까 놈이 거 도둑질 ᄒᆞ는 것은 상수고 무법천지라. 거의 무법이랏주게. 경ᄒᆞ니까 그 조 직ᄒᆞ렌 조 뷔어놩 ᄒᆞ난, 거난 제삿날인디, 조 직ᄒᆞ렌 보내멍 남은 사름은 젤 봐야 ᄒᆞ거든. 게난 혼자만 보내니깐에 조 도둑놈이 솔짝이 강 돌로 데가리 무사부난 죽엇젠 그 말이주.

3) 수적으로 많은 소의 떼.
4)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서 수풀 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 덤불.
5) 다간-송애기. 나이가 두 살이 된 부룩 송아지.

12. 밥도둑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5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홍우경(남, 1925년생, 소띠)

요약 : 부자이지만 혼인을 하면 아내가 밥을 많이 먹을 것을 걱정하여 혼자 살았다는 이야기

부잔디 홀아방으로 살고 살면서 그 홀아방으로 사는 것도 각시 ᄃᆞ려 오면은 (밥을 많이) 먹어분덴. 경헤서 이녁만 살앗젠 ᄒᆞᆫ 거주. <조사자 : 아! 각신 안 주고 지만 먹엇다고?> 각시 ᄃᆞ려 오면은 먹어부니깐 각시 안 얻엉 이녁만 산다고 홀아방으로 살멍. 경ᄒᆞ니까 곡식은 막 좋앗던고라. 복이 셧던고라. 막 방 ᄀᆞ득 데미곡 경ᄒᆞᆫ 사름인디 원 '궤기 사렌 사먹으렌' 궤기장시 오민 영 궤길 안 사먹어. 경ᄒᆞ니 한 사름이 내용을 잘 알지 못 헤연. 부잔디 각시도 안 얻곡 혼자만 살곡 경ᄒᆞ니까

"요놈이 뒌체로 영 헴신가. 어떵 궤길 먹기 실퍼서 궤길 못 먹는 놈인가?"

경헤 가지고 그걸 알아보길 위해서 궤길 ᄒᆞᆫ 꿰밀 사서, 식게사들 먹어신디 몰라도 일단 바깟듸서 사서 마당드레 휙 ᄒᆞ게 데끼거든. 이 놈이 뒌 체로 안 먹엄시면은 궤기를 갖다 먹을 거고 궤기를 아이 먹엄시믄 또 안 먹을거고. 이렇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데끼니까, 뒌체 아이 먹는거라. 마당 검질 영 작데기로 긁다가 밥 도둑놈은 어떵헹 여기 굴럼시니 그 궤기에 밥찬 ᄒᆞ믄 밥 하영 먹어진덴. 경헤서 경헷젠 ᄒᆞᆫ거주. 경헨 작데기로 케우려 부럿젠 ᄒᆞᆫ거라. 게난 뒌체로 아이 먹는 놈이라구나. <조사자 : 게난 밥을 더 많이 먹으카부덴 안 먹엇구나?> 응. 게난 밥도둑놈이렌 ᄒᆞ는 말이주게.

13. 도둑이 살았다는 하원 밧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5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홍우경(남, 1925년생, 소띠)

요약 : 하원밭에 길가던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이 살았었다는 이야기.

거기 도둑놈만 똑 산 것이 아니고 옛날 다 경헷덴. 무법시대난 법이 없는 시대고 여기 곳 밧이난 여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저듸 살멍 ᄒᆞ믄 어디 등록도 안 ᄒᆞ곡 이녁만 살믄 누게 거 알아? 경 뭐 나중에도 등록 안 ᄒᆞ니까 나중에도 아이 낼 것이고 주민세도 아이 내고 호적도 없고 경 그런 식으로 산거지. 경ᄒᆞ난 그거 ᄉᆞ방이 막 에워졍으네 거시기 ᄒᆞ난에 으슥ᄒᆞ고 ᄒᆞᆫ 디거든. ᄉᆞ방이 곳밧이난. 그 듸 다 곳밧. 그 듸 하원밧듸 한 것이 상동상이 핫다네. 경헹 상동 타 먹곡.

경헹 사는디 보석 장시가 저 곽지로 올라오믄 영 그레 들어가는 ᄀᆞ는 질이 잇어. 거기도 그저 사름이나 겨우 훌틀 질 정도 될 질이주게. 경ᄒᆞᆫ디도 사름 산덴 ᄒᆞ니까 보석 팔아보젠 가시니까 보석을 다 그냥 내불어동 가렌 ᄒᆞ는 거라. ᄒᆞᆫ 놈이 셔 둠서 남은 것들 어디샤 가신디 뭐 쉐사 잡아 먹으레 가신디 모르고 ᄒᆞᆫ 놈이 셔 둠서. 깡패. 요즘말로 깡패지. 내부러뒁 가렌. 경ᄒᆞ난 어쩔 수 어서부렷어. 어서부리난

"그걸 기왕이면은 몇 개나 놔둔 철인지 알지 못ᄒᆞ니깐이 쉬정[6]이나 세 봉으네 가켄."

아 게난 세어 봉으네 가켄 ᄒᆞᆫ 거 지꺼졍 줘 부렷주게. 경ᄒᆞ렌. 게니까 영 앉앙 그거 단작 저거 단작 만지곡 앞에 영 있는 사름 젤 손에 맞은 거 ᄒᆞ끔 ᄂᆞ는 거 앗앙 가ᄋᆞ련 발등을 다락 찍어 부렷어. <조사자 : 발등을?> 응. 경ᄒᆞ난 '아이

6) 수정 = 수

고!' 영 ᄒᆞ멍 들어 앉으난 발등 찍어부난에 걸어질거라? <조사자 : 도망은 못가고> 응. 경헤낫젠 ᄒᆞᆫ거주. 경헹 도둑놈들 사는데렌 ᄒᆞ는 말이주.

14. 칠성뱀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5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홍우경(남, 1925년생, 소띠)
요약 : 자식을 낳았는데 뱀이니 물에 띄워버렸는데, 그걸 발견한 자가 잘 모셨더니 부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칠성본풀이 내용과 비슷하다.

칠성뱀이라고 옛날에 그 아들 일곱 성제 죽은 혼령으로 뒌. 경헹 뒌거주게. <조사자 : 게난 칠성뱀이꽈?> 응. 경ᄒᆞ난 칠성으로. 법당에도 칠성 이서. 칠성뱀을 위로ᄒᆞ는 칠성이 이서. 법당에. 법당에 잇고 ᄒᆞᆫ디 칠성뱀은 발광ᄒᆞ곡 경 구렁이 ᄀᆞ찌 크덜 안헤여. 그런 것을 잘못 만지곡 뎅기당 큰일나. 죽이믄 사름이 죽어. <조사자 : 어떵ᄒᆞ당 아들 일곱 성제가 뱀으로 변햇수광? 나쁜 일 헷겟지예?> 나쁜 일을 ᄒᆞᆫ 게 아니고 영덕 할망 모냥에 누게가 그 어디 중국서사 헤신지 어느 날사 헤신지 아기 낳앙으네 뱀이난에 물드레 띄워부난에 누게 건졍 보난에, 경헤시난 뱀이 경 담아져시난 그거 ᄒᆞᆯ 수 어시 봉양ᄒᆞ쿠댄 ᄒᆞᆫ 게. <조사자 : 아! 봉양ᄒᆞ당 보난 뱀으로 변ᄒᆞᆫ 거 마씨?> 뱀으로 변ᄒᆞᆫ 게 아니고 위ᄒᆞ게 뒌 거주게. 위안이 뒌 거주게. <조사자 : 뱀으로 변헤시난 아들 성제 위ᄒᆞᆯ려고 제 지낸거예?> 게난 경 ᄒᆞᆫ 사람은 곡식도 좋곡, 무신거 ᄒᆞ난에 민간에서도 법당 아닌 민간에서도 요즘은 신방이 어시난 헤도 그 전엔 신방, 무당들 넘어질 때는 칠성굿을 하영 헤서. 그러면 그 칠성굿 ᄒᆞᆫ 집에는 뱀이 무장 나와. 동네도 경 그 집의 때문에 동네에도 막 돌아 뎅겨.

15. 스무 냥 이상은 모을 수 없는 자식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5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홍우경(남, 1925년생, 소띠)

요약 : 아무리 벌어도 20냥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다. 자신을 지키는 호랑이가 그 사람 집에 닭을 먹으려는데 그 사람이 막아서 성취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 연유는 호랑이 눈썹을 눈에 대면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호랑이 눈썹을 눈에 대면 사람으로 변신한 정체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

강 벌어당 부치면은 들 일이 생기곡 들일이 생기곡. <조사자 : 게난 어떤 남자? 주식이?> 남자가. 경ᄒᆞ난 ᄒᆞᆫ데 범이 오랑 ᄒᆞᆫ 번은 물어간. 남잘. <조사자 : 남자가 부모님이랑 ᄀᆞ찌 안 살안 마씨?> 부모님 다 죽어부난게. <조사자 : 아! 부모님 다 죽어부난 부모님보다 돈 더 많이 벌젠?> 스무 냥 물련. <조사자 : 스무 냥 물련? 마씸? 부모가?> 응. 부모도 만날 벌어봇자 스무 냥 넘어가질 안 ᄒᆞ곡 경ᄒᆞ니깐 이제 빈 뒬 모르고 돈 어성 죽어진 거주게. 전에나 이제나. 이제도게 먹질 못헹. 먹곡 쓰곡 하려거든 어디 돈 떨어지거들랑 도둑질이나 ᄒᆞᆫ 번 ᄒᆞ곡. 경이나 안 ᄒᆞ믄 아파도 도둑질 헤져? 헹으네, ᄒᆞ믄 죽음밖에 ᄒᆞᆯ 수 엇어. 돈 여간 놔지믄 누게 뀌와주지도 안ᄒᆞ곡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스무 냥 넘어가질 안 ᄒᆞ니까, 아들 물렷는디, 어디 강 헤봐도 ᄒᆞ당 부치믄 들 게 생기곡 ᄒᆞ당 부치믄 들게 생기곡. 경헤서 곤란헹 ᄒᆞ는 중에 범이 강 물어가부러. 물어가서 번히 이녁 사는듸 돌 어귀에 가져당 닿게 나둠서. 앞이 딱 지켠 오몽 못ᄒᆞ게.

옛날은 범이 말을 ᄀᆞᆯ앗는지 말앗는지 몰라도

"나를 물어 먹젠 심엉 끗엉 왓느냐. 어떵 살리젠 물어 왓느냐고. 물어 먹커건 시원히 사름 물어먹을 건 나가 간 탓다고"

"내가 너를 물어먹젠 온 게 아니라 너네 집의 톡 하나가 신디 그걸 먹젠 ᄒᆞ니까 니 놈이 자꾸 걸 가로막아서 ᄒᆞ니까 너는 가서 집이 와 놓으라고"

"우리 집의 어떤 독이 잇냐고. 우리집 독 엇다."고

"독 싯다."고

경ᄒᆞ니 독이 엇거들랑 ᄒᆞᆫ 눈에 ᄒᆞ나씩만 빠보라고 뽑앙 가지고서는 거기 집이 강으네 너네 집의 너네 각시를 봐라보라. 왜 그러냐면은 너네 각시가 돈 꾼냥 더 늘어나지 않은 원인은 돈을 벌어다 놓으면 너네 각시가 항시 글로 굴려분다. 글로 굴려부니까 생전 살아도 그것 밖에 못 홀거라고.

경ᄒᆞ연 눈썹을 뽑앗거든. <조사자 : 눈썹을?> 응. ᄒᆞ나씩 뽑앙. 이제 집에 오랑 이녁 눈에 가 영 대언 잇는 걸 보니깐이 각시를 보니깐이 아 암톡이라. 암톡인디 그저 돈을 그저 옛날 엽전돈이 난에 돈 수두룩 ᄒᆞᆫ 거. 발로 막 그레 올려부는 거라.

"아 요거 요렇구나. 영 ᄒᆞ니 내가 못 살거고 이 여자랑 살면은 난 생전 살아도 살 수가 엇구나."

가노라 오노라 아니 헹으네 술짝 그냥 해 진 디로 으슥한 디로 돌아나거든. 돌아나부런. 그 사람도 아까 말로 감은장 아기 모냥에 가당가당 해 저물고 주막집의연 주막집이 시니깐 그디 들어강으네 보니깐에 경 여편 ᄒᆞᆫ자만 술맛봄서. 술 ᄒᆞᆫ잔 사먹고 거시기. 영감은

"남편은 어디 갓느냐?"고. 그러니까

"낭 ᄀᆞ지 갓젠."

"아! 경ᄒᆞ냐고. 경ᄒᆞ면 어느 때면 들어오느냐?"고 ᄒᆞ니까

"ᄌᆞ물어가믄 들어온덴. 게난 이제 그 여자는 영 헹 베려보니깐에 사름이라. 저녁땐 그 ᄉᆞ나이 낭 졍 오는 건 영 붸려보니깐 산톳[7]이 썩은 낭 끗뎅이 ᄒᆞ나 물엉 궥궥 ᄒᆞ멍 들어오는거라. 궤기를 그렇게 보여. 아! 요게 요렇구나. 뒷날은 다시 그 놈은 낭ᄀᆞ지 가불고 아젠 강으네 말헷거든.

7) 산돼지

"당신은 만날 살아도 사람과 살지 안헹 산톳이영 살아졋젠."

"거 무신 말고?" 사실만을 골았거든. 이녁 역사들도 말ᄒᆞ고, 그 그듸 산톳으로 보이는 것도 말ᄒᆞ고 경ᄒᆞ니까

"오늘 저녁이랑으네 들어올 때 보라고 보믄 난 이거 영영 ᄒᆞ는 거라고" 왁왁 ᄒᆞ는 역사를 말헷거든. 눈썹을. 말헤노니까

"게믄 이 눈썹을 떼엉 나를 보라고 나를 보니깐에 사름으로 보염시냐 짐승으로 보염시냐." "사름으로 보염젠. 게난 게믄 나도 당신을 보니깐 사름으로 보염서. 당신네 서방은 들어오니까 산톳으로 보인다고 썩은 낭 끗뎅이 물엉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게 보인다고 경ᄒᆞ니까 저녁에 들어올 때 보라"고

아 이제 저녁에 서방 들어오라가난 영영 보니깐 산톳이 썩은 낭 끗뎅이 물엉 들어왐거든. 아 게믄 나 이제 산톳이영 살아졋구나. 몸이 싹 떠날 거 아니? <조사자 : 예> 경 ᄒᆞ니까 뒷날은 아 다시 낭ᄀᆞ지 가부난에 돌아나불멘. 경헹 돌아나부럿주게. 경헹 사름이영 사난 잘 살앗주게.

16. 벨친 도채비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6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홍우경(남, 1925년생, 소띠)

요약 : 마을에 도채비가 있었다. 한 할머니가 밥을 하여 대죽범벅을 만들고 도채비를 잘 대접했더니 도채비는 할머니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하도록 하여 부자되게 만들어주었다는 이야기

옛날 우리 마을에 벨친[8]도채비 잇어나신디 어떤 도채비가 이서낫냐 허면

8) 걸핏하면 성을 내는 모양

은 그 벨칠 사름이 물테를 ᄒᆞ거든. 물테.<조사자 : 물테? 그게 뭐꽈?> 물들, 우마를 키우는 거. 물 이제 잡으러 가젠 ᄒᆞ난.

할망구가 정신 출려 보렌, 정신 출리난, 뭐 어려운 시대난에 요즘은 뭐 밥이여, 무신 뒈려 보리영 얻어당 곤밥 먹엄주만은,

"쌀밥이 아니고, 그냥 밥을 ᄒᆞᆫ 그릇 만들어줍서. 양식이 엇이난."

대죽 ᄀᆞᆯ아, 범벅을 헷어. 그 범벅 몰라?<조사자 : 그 막 버무리는 거 마씸?> 응. 보리 버무린거게. 보리 버무려그네 익힌 거. 그게 범벅이주게. 뒈죽범벅(대죽범벅)을 헷거든. 뒈죽 범벅을 헹으네 동고랑[9]에 쌍으네 전대 알지? 전대는 영 그레 담앙으네 ᄌᆞᆯ라메영 어깨에 둘러 메는 거. 그게 전대거든. 경헹 경마장신듸 그 우의 물이 잘 먹으니까 그 우의 강 물 촟젠 올라감시난에 그 때 시절에는 그 경마장 사방 전부 곶밧, 납읍 우틔레도 전부 곶밧. 겐디 납읍 우틔레 지금도 가믄 곶밧이여게. 그딘 여기 닮지 안허여. 어떤 ᄂᆞᆷ을 만낭으네. 구딱 영 넘어사.

"뭣 허레 오는 길이우꽈?" 경허난

"무사마씸. 물 촟으레 댕겸수다. 영영 ᄒᆞᆫ 물이나 봐집디강?"

"그것 보단도 그 전대 들어잇는 건 뭣이꽈? 그거 뒈죽범벅입주양? 벌경헹으네 과짝 허영"

하 요것 도채비가 참봉[10]이렌 헤. 좋은 말로 위ᄒᆞ는 말론 참봉. 거 부재되는 도채비를 참봉이랜 허여. 머리가 과짝 허여. 일로 저듸도 도채비 들리난.

"무사마씸."

"그 뒈죽범벅 그거 나 줍서. 나 먹엉으네 물 신듸나 ᄀᆞ르쳐주켜."

"아 게믄 뭐 경헤도 좋지."

이거 뭐 무서와도 어쩔 수 없거든. 돌를 적에도 돌를 디도 엇고 경허렌 헹 내노난 우왁우왁 경 처먹언.

"물랑으네 저 노꼬메[11] 아멩 ᄒᆞᆫ 편의 강 봅서. 그듸 이시쿠다." 경ᄒᆞ니깐

9) 도시락
10) 양반

경 ᄒᆞ가 헤서 참봉이 맞긴 맞아뵌디, 틀림 엇일테주. 물 촞으레 경 댕기고 한 가ᄒᆞ느니.

"어듸 돈 벌엉 부제되고 싶지 아니ᄒᆞ우꽈. 경 ᄒᆞ젠만 헴시믄 ᄒᆞ주마는. 거 알아져? 잔말 말앙 오늘 물 촞앙가건 물 풀앙 육묵장시[12]나 ᄒᆞᆸ서."

"게믄 도와주젠?"

"허믄 도와드리쿠덴." 그 말 들어노난.

"그 대신에 보름에 ᄒᆞᆫ 번썩만 뒈죽범벅 헹으네 고내오름 꼭대기에 너른 팡 이신 데 노읍서."

"게난 경허주게. 할망신디 오란에 영영 ᄒᆞ렌 허여."

"아이고, 게믄 경허주."

경 허영 이제 뒈죽범벅 헹으네 보름날은 그듸강 내불면은, 원 <조사자 : 땅에?> 응, 그레 노렌 ᄒᆞ니까 놧어. 경 허영 송아지, 꽤나 팔고, 물이영 풀앙 미녕을 제주도 미녕 배 우의 바딱 시껑으네 ᄒᆞᆫ 배 잔뜩 시껑 간. 시껑 육지 갓주. 육지 가니깐에 육지 사름들은 제주도 미녕 왓젠 경 ᄒᆞ멍 미녕, 제주도 미녕 ᄒᆞᆫ 벌(필)이믄 필반을 줫어. 경헹 보니까 다시 이제, 배 시껑 강 ᄒᆞᆫ 배 더 잔뜩 시껑 온 거지. 여기 오란 또 이제 제주도 여자들 또 육묵 아졍왓덴 또 막 하영 더 주거든. 게난 영 허영 부제 뒛젠. <조사자 : 게난 금방 부자 뒈쿠다예?> 금방 부저 뒈주게. 가멍도 벌곡 오멍도 벌곡 경허난 도채비가 그 물건 살 사름들 들어사믄 다 ᄆᆞ음 변동사 시켜선지 건 모르주게. <조사자 : 게난 그 도채비가 다 수 쓴거구나예?> 경ᄒᆞᆫ거지. 아 이제 ᄒᆞᆫ참 막 부제 뒈지니까 그 옛날 ᄂᆞ려오는 말 이시난. 아, 이 도채비가 부제 막 뒈어불믄 망사분덴 헨게. 망사동 간덴 헨게.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언.

11) 오름 이름
12) 육지무명 장사

17. 거웃물로 환생한 사람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6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홍우경(남, 1925년생, 소띠)

요약 :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인데 거꾸로 흐르는 물이 있다. 이것을 거웃물이라 한다. 저승에 갈 때는 이 물을 먹인다고 하며 이것을 먹으면 이승의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 저승사자가 끌고 가는데 거웃물을 안 먹고 저승에 갔더니 소로 태어나게 했다. 하지만 이승의 기억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주인에게 대들었다가 죽게 되고 이번에도 거웃물을 안 먹고 이승의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되었다.

깡패가 깡패주게. 억센 체 허는 거. 억센 치 허여, 어거지 쓰는 거. 거 어거지 쓰는 게 깡패주게. <조사자 : 예. 맞아마씸> 경허난 그니까 어떤 때 쓰느냐 허니까 나 저승가면은, 한참 올라가면은 여기서 저승가멍 올라가면은 거웃물 거 건달이 잇다. 거웃물, 알로 우트레 솟구치는 물. 그거여. 그거 잇고 그 모가지 돌이렌 허는 건 그 모가지 말이라. 그 모가지가 잇다. 거웃물 멕이는 모가지가 잇다 허니까 저승채비가 걸앙 그 다 심어가.[13] 심어가믄 사름은 죽는 거고 거기가믄 꼭 그 물을 먹으렌 허는 거라. 그 저승채비가. <조사자 : 저승사자가 마씸?> 어. 경허난 절대 나는 안 먹겟다고. 힘도 좋고, 힘도 좋고 허니까. 경허연 장담 헷는디 아닐 게 아니라 거 참 보난 잡혀간 그듸 강,

"그 물 먹으렌"

허니까 이승에서 아이 먹켄 장담 허여나난

"안먹켄".

"왜 아이 먹켄"

13) 붙잡아가다.

허난 싸완. 밀고 들고 치고 박고 허연.<조사자 : 하하하. 저승사자가 마씸?> 어. 힘 좋으난 버쳔. 버치고 시간은 늦어가고 할 수 어시 그냥 갓어. 그냥 간. 저승 안으로 들어간 이 놈 물 아이 먹엇덴. <조사자 : 예, 옥황상제헌티?> 게난 이제 물 아이 먹엉으네 오란 헤시믄 거 할 수 어시 거 다시 강 먹엉 오렌 헐 것도 게. 게믄 거 억지로 경 버청으네 그냥 간디 다시 오믄 아이 버쳐? 거 헐 수 없다고 그 놈이라그네 저 중국 어느 편에 돌아불렌. 게난 그 듸 간에 그 훈장을 디밀어 부니까 쉐로 환생헤서. 쉐로 환생을 헤서 중심이 완전하거든. 그 물 아이 먹어부난. 그 물 먹어불믄 이 이승에서 헤난 걸 전부 잊어부는 거. <조사자 : 아. 그 물을 먹으민 이승에서 지 나쁜 짓 헷던 것도 다 잊어먹고?> 뭣이든지. 뭐, 일흠이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주식이 누게고 허는 거 잊어부러. <조사자 : 게믄 착한 사름으로 다시 태어나쿠다. 그 물 먹으민?> 착허게 된다고 다 경허나게. 어떵 되난 걸 잊어부런 돌아보지 못허게 허는 것이 목적이지. 목적은. 사름으로 태어나도 나. 이 아무듸서나 영 살아난 누구렌 헌 걸 잊어부는 거. 경허니까 거기간에 이제 물 아이 먹으렌. 허난 쉐로 환생시켜 부난. 쉐로 난 부에가 낫어. 부에 낫는디 쉐로 나긴 나도 어미는 밧 갈곡, 아 이녁은 더우믄 그늘에 강 눕곡 젓이나 먹곡 허니까 괜찬허거든. 사름 세끼로나 마찬가지로 나난<조사자 : 쉔디?>어. 쉔디. 경허는디 아서너달 되니깐에 막 고생이 받앙으네 코를 꿰젠 허거든. 마침 코 꿰엉 왁왁 휘두르멍 헤나난 아판 죽을락살락 혀만 멜록멜록 허멍 혼 발짝 혼 발짝 이제 경만 헤도 될건디 먹어시난 밧을 갈젠 말이여.<조사자 : 아. 이젠 또 밧갈렌?>어. 밧을 갈렌. 버청으네 자가 걷지 못허난 배때기를 퐁퐁 두드리멍 ᄒᆞ는거라. 이 놈의 주식을 어떵헹 포마시[14] 를 헤줘야지. 안뒈겟다. 경 헹 낮의 점심 먹을 때엔 진 출리곡 주인은 밥 먹고, 경 헹 다시 강 갈젠 헷거든. 겐디 뭐가 영 배때기를 그냥 확 헤분거라. 사름 죽이믄 게 쉐들 모다 잡귀로 안단 말이여. 잡귀로 아난. 아, 이제는 또 다음은 고생을 오래 헷으니깐에 저승가

14) 앙갚음

니까 오래 헷으니깐에 사름 아무듸로 강으네 환생시켜불젠. 경허연 사름으로 이제 환생시켠. 하니까 그거 물 아이 먹어부난에 그자…… 여기 한국에 살아나시믄 한국에 어듸 누구네 집의 난 누구 고홀건디.

18. 봉성마을에 인물 난 전설

조사일시 : 200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신명동 나무정자 아래

제보자 : 강규방(남, 1940년생, 용띠)

제보자 상황 : 연세도 많지 않고, 발음도 정확하셔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쉽게 이해하며 채록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이야기를 역사학적 관점으로 비추어 해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다.

*21~24제공.

요약 : 옛날에 한 남자가 한양으로 과거보러 가는 길에 잠깐 머물게 된 주막에서 관상을 보게 되고 관상쟁이의 말을 따라 과거를 포기하고 봉채오름에 정착하여 많은 자손을 낳고 번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과거 시험을 보레 그 당시에는 조선 초기에는 한 1개월 간 걸어야 서울 도착해. <조사자 : 어디서 1개월간 마씨? > 여기서 출발해서 목포에 강 내려가지고 그래서 ᄒᆞ룰 ᄒᆞ룰 걸엉 서울 한양까지 가젠 ᄒᆞ면은 한 몇 십일 걸린다 이거야, 걸엉. 차가 잇나? 아무것도 없지 ᄒᆞ루에 십리 가면은 ᄒᆞ룻밤 자고 ᄒᆞ룰 쉬곡, 또 출발헤영 십리 가면은 ᄒᆞ룻밤 자고 걸어서만 한양을 가는 거라. 한양이 서울이거든 거기가야 시험을 볼 거 아니라. 거기 중간 중간 밤을 자는데 그 당시에는 미신들이 하영 형성 뒈 잇는 신이 존재하고, 모든 조상은 신으로 조상님이 신으로 우리가 사름들이 산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주팔자라든지 이런 걸로만 믿엉 살앗지. 그 당시에는 사고방식이 잇는데 주

막집에서 오름 ᄀᆞ트면은 역학이라든지 점도 치곡 ᄒᆞ는 사름이 이서. <조사자 : 아 주막집에?> 주막집에 영 보면은 그 사름들도 같이 잠을 자. 오름 ᄀᆞ트면 여관 ᄀᆞ튼거지. 그런 식으로 방 값 내고 잠을 자면 여객들이 하영 홀거 아니? 많으면은 그 당시에는 공부를 많이 ᄒᆞᆫ 사름들만 그레 다녀. 시험보레 몇 십 년 공부 ᄒᆞᆫ 사름들만 가는데 어떤 육지 양반이 관상, 관상이면 얼굴, 관상을 봐보아선 당신은 이번 한양에 올라서서 과거 시험 합격은 장원급젠 하겠지마는 그 보다 저 조흔 관심이 잇다고 뭐냐고 또 ᄒᆞ니까, 당신네 지역에서 서남쪽에 봉채 오름이 잇다. 그 봉채 오름에 가서 밧드레 가서 밧드레 가서 정착을 ᄒᆞ면은 만 명 손에 천련 지지땅이 잇다 ᄒᆞᆫ 것이 그 관상 주역 ᄒᆞ는 사름이 얘기 ᄒᆞ니까, 그 당시에는 과거고 뭐이고 손만 바라볼 뗴지. 사름 사고방식이 부귀다남이라고 ᄌᆞ손만 바라본 땐디 과거를 포기 ᄒᆞ곡 촞아온 곳이, 이 봉성을 촞아와서 여기보니까 수풀지대, 수풀지대 사름은 ᄒᆞ나 없고 무림지역이고 나무만 울창햇어. 좌우간 난, 그 하르방이 정착을 헤가지고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사,오백년 지낫는데 그 이름은 강두영이렌 ᄒᆞᆫ 할아방이라. 강두영 할아버지가 와서 이 마을에 정착을 헤서 아닌 것이 아니라 아들을 8형제를 낫어. 아들 8형제를 나가지고 워낙 관상도 잘 봣는지 8형제 손에서 또 8형제 계속 자손이 많은게야. 많으니까 아마 제주도에서 그 하르방 ᄌᆞ손이 지금도 단일 손으로는 최고 많아요. 그 할아버지 자손이, 두자영 할아버지 자손이 옛날 국회의원 ᄒᆞ던 강보성씨도 그 자손이고 또 지금 현재 강창일 의원도 바로 그 직계자손이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단일본 그 삼,사백년 조상 밑으로는 최고 많은 숫자일거여. 한 삼만명 <조사자 : 그것은 진짜 많은 거지예?> 할아버지가 그 점쟁이, 그래 맞다. 그래서 이 마을을 정착했는데, 이 자끔 ᄌᆞ손들이 이제 뭐 백년이 흐르고 이백년이 흘러 가니까 이제 뭐 씨족사회에서 ᄌᆞ손들이 많이 살고 ᄒᆞᆫ 백호도 살고 이백호도 ᄉᆞ니까 게므는 공동농지를 그때는 임자가 없는 땅이거든. 임자가 없어. 그 당시에는 이 제주도에 지적도나 토지임자는 일본놈들이 만들어논 거에요. 1913년에 만들어 논 게 대한민국의 지적도고 주인 찾아주고 웨정 때 그전에는 임자가 없

어. 조금 똑똑ᄒᆞᆫ 사름이 낫다 ᄒᆞ면 이 부근 낫다고 제주도 어느 마을 쪼끔 뭐 ᄒᆞ면은 저쪽으로 가 가지고 ᄒᆞᆫ 몇천만평 시면은 가서 이거 몬딱 나땅, 못난 사름들은 심부름만 ᄒᆞ고 그것이 나땅이니까 너 이땅에 농사지어서 바치라고 이런식으로 똑똑한 놈은 관청도 없고 행정기관도 없고 밥도 없고 헷는데, 그 당시에 힘 세고 요망진 놈은 똑똑한 사름은 몬딱 땅 차지헤가지고, 조금 밑에 영 어질고 순ᄒᆞ고 모자란 사름들은 불러다가 이 땅에 농사 지어서 반 가져와라, 임자가 없으니까 이건 뭐 이거 몬딱 내 거다, 이런식으로 헷는데 그 보니까 이 땅이 아마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땅이지, 봉성.

19. 어도리에서 봉성리로 지명이 바뀐 전설

조사일시 : 200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신명동 나무정자 아래
제보자 : 강규방(남, 1940년생, 용띠)
요약 : 원래 어도리는 유림촌으로 유명했는데 어도리라는 마을 이름 때문에 자손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여도 과거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봉성리로 마을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는 전설.

이 마을은 유림촌이면서 선비촌으로 유명을 헷주. 전통적으로 조상이 계속 내려오니까. 헷는데 계속 그로 후에 ᄌᆞ손들이 번번이 공부를 예서 엄청헤서 가도 서울 한양에 소시에 합격을 못 ᄒᆞ여. 소시에 합격을 헤야 요즘 같트면 예비고사지. 본고사 들어가는데 소시에 합격을 못 ᄒᆞ니까 지명이 나쁘다고 그래요 어도리가 나쁘다. 어도리 리명 때문에 인물이 가소 제수 벗어젼 안난다 헤가지고 그게 ᄒᆞᆫ 이백, 선조때? 선조 때지. 여기서 엄청난 똑똑ᄒᆞᆫ 사름이 공부를 많이 ᄒᆞ고, 과거시험을 보러가젠 ᄒᆞ니까 지명이 나빠서 안된다 ᄒᆞ니까 일부러 워낙 잘난 사름인데 곽지, 예 마을이 있어 곽지. 이사를 헷어. 삼년전에 어도리는 과

거가 안나니까 시험을 가서 풀기 위해서 곽지에 이사를 헷어. 과거보레 서울 가기 위헤서 뭔 시험이냐 요즘 ᄀᆞ트면은 사법고시라, 사헌부. 사헌부 장령시험 요즘 ᄀᆞ트면 검사시험인데 아닌 요것이 아니라 이제는 곽지에 강 삼년을 이 짝에 살당 과거 보레 가니까 그 사헌부(장령)시험에 탁 장원으로 급제ᄒᆞᆫ디 근데 그 사헌부 장령 그 할아버지 선조 때 그 기록은 지금도 잇어. 현실로. 그 사름이 (상보장령)ᄒᆞᆫ 하르방이 그 때에 어도로 갔으면은 불합격을 ᄒᆞᆯ건데 곽지로 이설헤가지고 가기 때문에 장원급제 삼류중 검사시험이라 상보장령 시험이엇는데 그 기록은 제주도 옛날 기록에 우리가 봣고 또 그 자 손이 지금 많이 있어요

자손ᄀᆞ튼 통속집에 가면은 그 당시 손주 요즘 합격 ᄒᆞ면은 임금이 찍어줘. 찍어주는 게 지금 기록에 있어요. 그게 장령 하르방 기록이 잇고 게난 그게 쭉 전설로 내려오는 게 봉성, 어도가 나쁘다, 과거를 못부터. 사름은 공부를 워낙 잘헹 가면은 떨어지는 게 리명 때문이다 헤가지고 그때에 1950년도에 봉성리로 바꿨지. 도내산리에서 어도라, 어도리로 그 다음에는 봉성리. 지금까지 이젠 봉성리로 완전 행정구역이 개편 됀.

20. 부저리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신명동 나무정자 아래
제보자 : 강규방(남, 1940년생, 용띠)
요약 : 옛날에 부저리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동냥하러 온 점쟁이를 박대하여 훗날 홍수로 온 가족이 화를 입어 모두 죽게 되었다는 전설. 아직도 집터와 묘가 남아있다고 한다.

옛날에 고려 때로 가면은 기록이 업서. 기록은 업고 사실은 사실인데 실질적인 인물인데 고려 때 부저리라는 사람이 저 우착에서 한 2km 부저리 터가

잇는디 지금도 그듸 가면은 기왓장이 나와. 그 집의 그 땅에 가면 부저리 터에 가면(조사자 : 땅 파보면 마씨?)응 게난, 거기 고려 때 이조 전에 그 듸 제주도에서 제일 부자가 살앗다고, 왜 그러냐면 그 집에 대한 전설, 노래가 잇어, 노래가. 그 듸는 숟가락도 금으로 만들고 밥도 금. 그 당시에 고려 때에 기와집이라 나시니까 완전 최고 부자. 금으로만 다, 식기가 다 금. 경 했는데 너무나 잘 살다가보니까 아마도 주력ᄒᆞ는 사람이 점쟁이란 말 있잖아이, 그 사람이 그 듸 갓다가 동냥ᄒᆞ레 간 거지. 제일 제주도에서 잘 사는 집이 강 동냥ᄒᆞ레 가니까 동냥밥을 잘 아이주고요, 자기는 최고 잘 사니까 걱정이 없다 헹 안 주니까, 이 사름이 가면서 너는 앞으로 30년이면 지[15]가 막일거다. 헤동 가븐 모냥이여. 게난 그걸 달레영 잘 그 사름을 돌아당 잘 먹이곡 ᄒᆞ엿으면은 화를 면ᄒᆞᆯ건디 아닌 게 아니라 꼭 30년 뒈는 해에 요즘 그 강원도 홍수 있잖아이. 수치레 비가 오니까 누웡 자당 ᄒᆞᆯ 수 어시난 온 가족이고 아들일곱 성제 판찍 죽언. 내 끄서 가지고 (조사자 : 물 때문에?) 어게. 홍수추룩 나도 죽으난 그 일곱 성제 ᄒᆞ곡 부저리에 죽은 묘가 지금 있어. 현재. 그 부저리 묘라 헤서. 저 우에 가면 부저리 묘라헤서.

21. 강도령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신명동 나무정자 아래
제보자 : 강규방(남, 1940년생, 용띠)
요약 : 강도령이라는 무관이 김녕사굴에 사는 뱀을 칼로 잡은 이야기.

강도령이엔, 저 요 동네, 우리 조상은 아니고 저 쪽에 가믄 그 자손들이 시

15) 기(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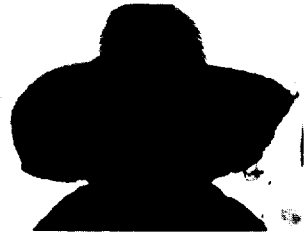
카부덴 강도령 자손들이 저 쪽에 가면은 강도령 자손들이 잇는데, 그 당시에 또 공부도 많이 ᄒᆞ고 키가 ᄒᆞᆫ 6척 1m 80cm로 그땐 엄청난 크기지. 지금은 1m 80cm은 ᄒᆞ곡 인물이 훨찍 ᄒᆞ곡 장군 정도지. 칼 무관이라 무관. 강도령이가 헌데 웨 강도령이냐 ᄒᆞ면은 그 김녕 어디 그 사굴에 뱀이, 뱀이 살아가지고 일년에 사람 처녀를 희사를 헤난 모냥이라. 희사를. 희사를 헤니깐에 그 뱀이 사름 먹어 그 굿 ᄒᆞ고 ᄒᆞ는 곳이지. 게메 그게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사름을 어디 골라당 말이지 강제로 심어당 처녀를 뱀 ᄒᆞᆫ티 제 지내멍 심으로 독샐허여. 심으로. 그런데 그 강도령이 그 말을 들은 모냥이여. 봉성사람이. 그 말 들어가지고 그 사람도 보통 사람 아니주게. 칼을 들르고 일부러 거 듸, 거 듸 사람ᄒᆞ고 결혼을 했다. 일부러 그 동네 여자하고. <조사자 : 김녕 쪽에서 마씸?> 응응, 경헤야 뱀을 칼로 불블거 아니라. ᄒᆞ는데 단단히 봉한 뭐꼬 칼도 잘 만들고 원래 무관인데 키가 1m 80cm이렌 ᄒᆞ곡 촘 훌륭한 사람이렌 장군인 모냥이란게. 처가칩에 강 이제는 보니까 그 말 들어가지고 제를 지내고, 사람은 처녀를 금방 그 듸에 굿 무당들 막 굿 ᄒᆞ고 막 그것이 종말 뒈가면은 사람 먹으레 뱀이 나온다 ᄒᆞ여. 나온다고 막 무당들이 불러들영 오십쇼, 오십쇼, 이제 ᄀᆞ치 가게 됐수다. 이제 여자는 지집아이는 무껑 안쪄둡서. 들이청 기가 멕힐 거 아니, 이제는 강도령도 ᄀᆞ치 강으네 구경을 ᄒᆞᆫ거지. 나오면 모가지 칼로 칠 걸로. 아 이제 왕으네 여자를 이제 ᄀᆞᆺ 그리 홀젠 홀 때에 잠깐 헤가지고 뛰어간 칼 빼연 칼이 보통 칼이 비늘이 칼이 안 든다 ᄒᆞ여. 워난 몇 백 년 묵은 칼을 강 어디 육지 강 쳬고 좋은 칼을 뽑아 왔던 모냥이여. 제[16] 한 봉지 불껑[17] 닥 봉지에 담고 잘 안 뿌리면 또 부터분다 ᄒᆞ여. 그래서 나완에 지집아이를 거를 사실인 상이고 강도령, 서도령이여 강도령이여 ᄒᆞ는 말은 ᄒᆞᆫ 데 그 칼로 그 무술ᄒᆞ는 사름인데 착 게믄 치니까 피가 쫙 벌겻는데 그걸 안 뿌려시면은 자기가 죽을건데 부텅 잡아먹을건데 제를 탁 ᄀᆞᆯ기니깐 그기가 뒌 죽을꺼 아니라 잡앙으네 이제는 저리 가렌 강도령이 둘러멧당

16) 재(灰)
17) 불티. 검부러기 따위를 태우는데서 생긴 재

데껴부럿지. 산에 강 데껴부난 게난 그 동네 사름들은 지금도 서도령이 강도령 때문에 그 오죽 고녁[18]이라게. 처녀 하나 일년에 하나 봉가당 ᄒᆞᆫ다는 게 그렇게 비참ᄒᆞ잖아. 지금도 그듸 어듸 가면은 서도령이여 강도령이여 ᄒᆞ는 말이 나와.

22. 하원밧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5일
조사장소 : 구몰동 나무정자 아래
제보자 : 현사원(남, 1934년생, 개띠)
요약 : 옛날에 하원밧에 허정이라는 강도와 직근이라는 장사가 살았다는 전설.


현사원(남.1934년생)

선운정사 바로 정문 옆으로 이짝드레 돌아가면 욜로 곽지로 이레 올라오는 길, 이레 솔길이에요 여기가 솔길인데 그 솔길 밑에 하원밧이라고 있는데, 허정, 보석장수 이름이 허정인데... 허정이라고 잇는데 그 보석장사가 이제 지금 같으면 강도지, 강도 지나가던 사람들 때려가지고 짊어지고 간 보물이 잇든가, 무신 물건을 홈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고 그 우에 그 동산 바로 길 이짝드레 직근이라고 힘센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데 것도 아마 같은 그런 폭력, 지금 ᄀᆞ트면 폭력조직이, 조직은 아니지만은 행색을 하면서 거기 살았다는 거, 허정이에요, 허정. <조사자 : 그럼 하원밧이 그러면은 이 두 사람 땜에 좋아젼마씸?> 아니 두 사람 때문에 거시기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먹고 살앗다는 전설이지. <조사자 : 게믄 나쁜 일 헤시난 벌 받고 그러진 않고?> 벌 받고 안하지. 지금ᄀᆞ치 조금만하면 강 전화하곡

18) 곤욕

고발하곡 할 때가 아니니까 옛날엔 안햇고렌 하믄 증거잇어? 뭐 증거없으민 못하는 거 아니야?

23. 토산 뱀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5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강형관(남, 1933년생, 닭띠)

강형관(남. 1933년생)

저기 토산이란 ᄒᆞᆫ 듸가 경 뱀을 숭배해 놧주게, 토산 뱀이 나그네 그 처녀들을 바쩐. ᄒᆞ엿는디 두 놈이 이 마을의 사름이 장가들언에 드니 그 제 지내는 날이 신 모냥이라. 제 지내는 날이 시니깐 이제 처갓집에 갓당 제 지내는디 다 이제는 그 날 정성히 기도ᄒᆞ젠 헤가니까. "거 나도 강으네 기도드리면 안 되카 마씨? 나도 강 보쿠다" ᄒᆞ멍 ᄒᆞ니까 "느 자이 ᄂᆞ갈 사름인디 갈 필요 이시냐?" 경헤도 강 나 이듸 온 짐에 강 그치 기도드리쿠덴 ᄒᆞ멍 갓당에 그 광경 봔. 칼 품엉 갓당 그 뱀을 죽여부러낫덴 전설이 이서. 그 전설인디 경 ᄒᆞ니깐, 경 헨 죽엿덴 전실이 잇는디 역사적으로는 이 목사가 죽엿어 역사적으로는. 경헤서 나 듣건데는 서도령이 강도령 이거 심방 말 귀에 그런 말 또 건드린다고 헤서는 <조사자 : 아~ 강도령이> 응. 강도령이 뱀을 죽이니깐 건드린다고 헹으네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이거는 나 그냥 거기 가본 것이 아니고 전화로, 전화로 조금.

24. 부저리와 금성못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5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강형관(남, 1933년생, 닭띠)

제보자 상황 : 마을 이장님으로도 활동하신 분이라 봉성마을에 대한 대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계셨고, 봉성 마을이 갖고 있는 전설도 비교적 쉽게 설명해 주셨다.

*27~28제공.

요약 : 옛날에 부저리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부저리가 죽자 지관을 불러 묘를 알아봤는데 딸이 그 못자리가 탐나 묘를 바꾸게 한다. 이후, 부저리 집안은 몰락하게 되고 집터에는 못이 생기게 되었다. 그 못이 바로 금성못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전설.

요 여기서 ᄒᆞᆫ 1km, 2km 정 될거라. 요 위. 부저리라고 ᄒᆞ는 사람이 잇엇는디. 부저리가 게메 건 전설이라 노니깐에 모르되 그 터가 당대 발복지기로 30년 살믄 떠나라 ᄒᆞᆫ듸란 말이이서. 당대 볼복지기로 터를 봉가놔서는 그 듸 집 짓언. 이전 뭐 울 부끄듯이 삽시로 부제가 이제논 왕창ᄒᆞᆫ 부제가 된거라. 부제가 이제 상당ᄒᆞᆫ 부제가 뒈어서는 이 노래에도 이셔. 상서ᄆᆞ를 부저리 집이. 은방엣귀 열두 개더라 은으로. 방엣귀도 은으로 만든 방엣귀가 잇엇다니까. 경ᄒᆞ고 오이 같은거. 오이. 그런 것도 은 접시에 바트고 뭐 이렇게 살아. 상당ᄒᆞᆫ 부제여게. 겐디 인색헨, 고긴 아이 사먹은 말이 이서. 그저 그런 부제니깐 그렇게 됏어. 옛날에 그저 고기장시들은 쪼끔 얏봣어. 장사는 농공상. 농, 공 그 다음 공이고 그 다음은 상이란 말이여. 상이 공만도 못헤. 근로자 공. 경ᄒᆞᆫ 때문에 그 우리 어린 때는 우리 어머니들이 궤기장시는 "고기 삽서" ᄒᆞ면은 "아니사" ᄒᆞ지 "아니사쿠다"헹으네 '예'자를 아니 부쳐. 안 부쳐. "고기 삽서"ᄒᆞ면 "아니사"헹으네 반말로 놔. 장ᄉᆞ를 얏봣주게. 경헹으네 이제는

아이 요놈의 집이 고기 ᄒᆞ마리도 못 푼단 말이 잇거든게. 뭐ᄒᆞ민 큰 기대를 거는디 고기를 안 산디 수상스럽단 말이거든게. 아 이만ᄒᆞᆫ 집에서 고기를 못 풀아서 내가 어디강 프느냐 말이여 이걸. 글체? 글치안헤게. 쌈이나 ᄒᆞ면 공꺼나 먹는집인가 이거? 고기를 그냥 울남드려 딴드레 던졋어. 부잣집에. 공짜나 먹는 집인가 헤서 그냥 데껴부럿어. 바끄드록 바저 그거 네치라. 헹 밖으로 내치라ᄒᆞ영 하인신디레 명령ᄒᆞᆫ단 말이여. 그렇게 큰 부자인디. 그 부저리랜 ᄒᆞᆫ 사름이 똘에만 혹해가. 메누리는 천대, 좀 받은 몰도 잇긴 이서. 잇는디 죽젠 뒈니까 정시를. 정시옌 ᄒᆞᆫ건 지관. 거 터 막 결정해주는 사름. 청해서는 돌아봔. 이제는 ᄒᆞ는디 그 상제가 물으니깐 하 여기는 그 아주 좋은말은 헤여. 아 이거 우리 아버지도 우리 시아방도 연세가 많은디 우리 아버지도 그런듸 봉가질건가. 이젠 욕심이 똘이 셍길 거 아냐? 저런딜 봉강 우리 아버지도 헤야 될건디. 아. 궁리궁리ᄒᆞ당. 아. 이거 지비 아방을 못묻게 헹 우리 시아방을 묻엉 나가 잘 살아야뒈지 이런 몸이 셍겻단말여. 그려서 그 개관이라고 헤서 사름을 묻을 때 파는 시간이 이서. 몇시에 파라. 그것이 시간이 조금 앞당겨진 모양이라. 응? 묻는 시간이 앞당겨지니까, 개관 ᄒᆞᆯ 시간이 묻는 시간이 하여간 길 거 아녀게. 길어진 모양이라. 개관헹 딱 이땅 개관헤서 이제 땅을 딱 파 몰래 밤중에는 물을 강 그레 개관ᄒᆞᆫ듸 물을 막 비워부럿어. 물을 비와부는디 아침의 이제는 행상ᄒᆞ야 '어이야 에야' ᄒᆞ멍 이제는 눕졍노니까 물이 그렁그렁 헷단 말이여. 깜짝 놀렛지 이제는. 깜짝 놀랠 거 아니야! 개관 ᄒᆞᆯ때는 빠싹 ᄆᆞ른 흙이 물이 이시니 상제도 깜짝 놀랏거든. 겐디 똘은 이거 이런듸 우리 아방을 묻엇다고 이거 정신. 그 상제 지오라방 정신ᄎᆞ릴 여유도 어시 와작 울멍 막 눈투극을 벌인단 말여. 이녁도 생각을 헤보니까 누이말이 맞아. 아 이제 자기 아방을 차마 물 위에 묻을 수는 없다 말이거든. 그러니 안 뒈겠다고 헤서는 고쳐 묻엇거든. 다른듸다 묻엇거든. 에 다른듸 묻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는 망ᄒᆞ게 뒈니까 그 어디가 내가 어서낫는디 부저리 망ᄒᆞ게 뒈니까 글로 내가 탁 터져. 내가 터젼. 그 사름 망ᄒᆞ게 되니까 글로 내터지고 망해부럿다 헹. 그 게난에 그 물이 묽으지 아니연 내라. 그 물

이 야간 저건 이단봉 아레서 이루어진 물이라. 기정내. 저 저군난데 우녁밧 거 무슨 밧고? 그 밧듸가면 땅이 춤옥헹으네 다 페영 벗어지지도 아니ᄒᆞ곡. 중간중간 홀쳉이 뿐이지. 흔적이 영 어서. 삽시에 글로 내터졍 망헤부럿젠 ᄒᆞ고 그디강 똘이 묻어네 똘은 조칩인디 거기서 관리ᄒᆞ고 잇는디 작년인가? 그디 동자석인가 뭐 누게 도난당헷주게. 경찰에서 나신디 전화 오라네 관리자가 부저리산 관리ᄒᆞ는 사름이 어디 살암주게. 무사 들읍디가? ᄒᆞ난 아 여기 동자석 도난당헹 잡앗는디 그저 동자석이 거 뭐 그 손 어듸 살암신지. 거 조수 조칩의 살암다고. 그 종가댁이 조칩드레 연락ᄒᆞ믄 알거렌 헹으네. 위에서 내 터진 내. <조사자 : 아. 터진 근원지가 거기마씸?> 글로 내려온 오름이주게. 오름인디. 에. 그디 썩은 기젱이라고 ᄒᆞ든디 그저 썩은 기젱이라고 ᄒᆞ든디 그디가 와전헹 쉐 누운 헹체렌 ᄒᆞ여. 쉐 누운 형첸디 글로 끈어부렁 야게 끈어진 형체렌 헷주게 그거. 썩은 기젱이사 돌이 구싹구싹ᄒᆞᆫ 돌이난 썩은 기젱이렌 ᄒᆞ는거고. 그 오름 바쳐잇던 그 흙이 돌멩이가 큰 돌도 아니고 뭐라고 ᄒᆞᆯ까. 자갈보다도 게송 닮은 거 그거 송돌 닮은 거 비딱비딱 ᄒᆞᆫ 무기주게. 쌀 터졍 딱 맞으난 게난에 내 터지멍 그 오름 또레기 끈엉 도라부리난 그듼 기정으로 영 그저. 게난 부저리 망허긴 ᄒᆞ난에 그 내터지멍 그 오름 앞자락을 끈엉 돌아부난에. 또 그듸에는 보섭물로, 물이 근원이 보섭물이라 헌데서 셍견. 그듸 기정내라고 허는 못 파진 데가 잇어. 걸 들르면서 오면서 부저리를 집에 덥쳐선 부저리는 망헷고, 이제 집이 망허믄 못 파진다는 말이 잇잖아. 금성못이 셍겻어. 그 때.

25. 감외물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6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강형관(남, 1933년생, 닭띠)

요약 : 소가 누워있는 형체의 오름이 있는데, 그 오름을 눈오름이라 한다. 그 눈오름의 머리형체의 부분을 자르는 형태로 감외물이 흐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로 이 근방에서는 소 축산업이 안된다는 전설.

감외물이라고 허는데 그 물을 거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요기서 헌 1킬로미터도 안되는디 조그만흔 오름이 잇어. 눈오름이라고 헤서는. 눈오름 <조사자 : 눈오름마씸?>응. 건 누운 오름. 소 누운 형체라. 그레서는 그 듸 와서는 소 데가리를 짤라 부럿어. 게난 지금도 기정이 이 높인데, 그 오름 내로 짤라 분 듸가. 게난 그 바로 짤라 분 듸로 내 주게. 그때는 썩은 구젱이[19] 라고 헤서는 흑이, 흑 자체가 그 뭣인가. 송 달믄 흑. 붉은 흑이주게. 게서는 붉어. 소데가리 피 모냥으로 붉어. 그 쭉 서편의 산이 잇는데, 소 데가리 쫄라도 허파는 살아잇다. 불락불락 흔다 헤서는 영장 묻으멍 이뒨 허파 형체라. 흔영으네 소는 짤라부러도 그 허파는 살아 잇을 꺼 아니냐 헤서는 경헤동 허파 잇덴 허는디, 경헹 짤라보니까 소데가리가 여기 쉐테들이 다 망헤 부럿어. 옛날 부자가. 축산으로 부자 헹세 허던 사름들이. 그 때 그 물겟, 여기도 부저리도 망헷지마는 여기 소태도 그때 다 망헤부런. 손해를 봣지.

26. 콩데기 풋데기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5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문일화(여, 1939년생, 토끼띠)
양현숙(여, 1943년생, 양띠)

제보자 상황 : 두 분의 할머니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전개하셔서 그 사이 새로운 내용이나 좀 더 구체적인 상황 묘사도 가능했다. '콩데기 풋데

19) 소라나 보말 껍데기

기 이야기' 의 경우 앞부분은 생각이 나지 않으셨는지 중간부터 전개하셨다.

*29~31제공

요약 : 콩쥐 팥쥐 설화와 같음.

문일화(여.1939년생)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질어당 노렌. 잔치 먹으레 가멍. <조사자 : 콩데기 한테?> 응. 콩데기 한테 질어다 노렌 ᄒᆞ난에 막 질어다 놧거든. 게도 세어가곡 세어가곡 ᄒᆞ난에 무슨거엔 ᄀᆞᆯ앗젠 ᄒᆞ라만은 것도… (다음 양현숙 할머니께서 이야기 전개함) 여… 어멍이 밋구멍을 막아분거라 영으로 밑구멍을 막으니까 물을 질어다 노면 차고 차고 찻주게. 경ᄒᆞ고 이제 마당에 잇던 마른 모래 가지고 그거를 쏠을 까라고, 쏠을 까라고 하니까 그거는 손으로 깔 수가 없지. 마당에 멍석을 많이 넌 거를, 그러니까 그 어멍 영이 새들을 막 모여다놓고 새들이 다 그거를 까준 거라. 나르고 다 까가지고 쏠 다 만들어놓고 그렛는데 이제 잔치… 요새 왕. 왕 잔치 ᄒᆞ는 듸 미녀를 이쁜 사름을 뽑을라고 아리[20] 전부 모여오렌 ᄒᆞ난에 다슴어멍이 나기 난 똘은 데려가고 콩쥐는 집에서 일ᄒᆞ라고 막 시켜두고 ᄒᆞ곡 그렛는데 이제 신발을 왕이 신발을 맞는 사름을 자기가 뽑겟다. 게난 꼿신이라. 꼿신인디 그거를 이제 팟쥐를 신길려고 ᄒᆞ니까 안 맞아 가지고 막 어멍이 억지로 신으라고 막 발을 옹크리면서 신어도 ᄂᆞ시[21] 못 신어가지고 다음에는 콩쥐가 갓어. 콩쥐가 발을 가니까 그 신발이 딱 맞아부렷거든. 맞으니까 이제 왕이 이 사름을 채택하겟다 행 이제 콩쥐는 왕 잇는 듸로 가곡 팟쥐는 이제 못 가니까 막 애가 달아가지고 어떠코롬 해도 콩쥐를 죽여불라고. 그래도 인제는 와이 못하게 헤가지고 콩쥐는 왕 잇는 데로 가고 팟쥐는 안되고 그래.

20) 아래
21) 도저히

27. 열녀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5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양현숙(여, 1943년생, 양띠)

요약 : 열녀의 유래.

양현숙(여.1943년생)

결혼 헤가지고 임신헤진 줄도 몰라신디 남편이 죽어부러서. 게난 이젠 죽어부난 이젠 그 사름이 시부모들 모시고 매일 살아서, 그 청춘을 다. 아들은 어떵 헹으네 아들이 막 커서 열녀 난, 사름 아들이. 커가지고 이젠 어듸 과거보레 가당에 이젠 아방이 먼 듸서 가르쳐주긴 헤서. 저것이 네 난 어멍이다 ᄒᆞᆫ 걸 가르켜 줘신디 어멍은 몰라서. 몰라신디 아들이 그 듸 막 비 맞으멍 가니까 그 사름이 그 옷 딴 거 갈아 입찌곡 그 옷은 빨앙으네 말리고 헤영으네 이제 그 사름이 나갈 땐 그 학생이 나갈 때는 계란을 삶아가지고는 보따리에 영 헹 싸주면서 가당으네 질 건너가당으네 베고플 때랑 계란 먹으렌 주난에 이젠 그 학생이 그거를 자기가 아빠한테 말 들은 말이 잇으니까 이거 편지를 영 썽으네 그 여자 신드레 줘서. 주난에 편지를 영 보니까 자기 아들이라, 자기가 난 아들이거든. 경허난 이제 자기 난 아들이라도 아들이렌은 ᄀᆞᆮ지 못 ᄒᆞ고 이젠 매일 살아신디 이젠 아버지가 그 집에 종이라. 그 여자 시집에 경헤서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ᄀᆞᆺ 나면서 주인이 이젠 저기 아기ᄒᆞ고 종은 내보내분거라. 내보내부난 그 여잔 계속 시부모 모시멍 살고 그 아기가 자라나니까 자기 어머니를 찾아 온 거라. 찾아와 어멍이옌 말은 못 ᄒᆞ고 ᄒᆞᆫ 이틀 살당으네 이제 살 때는 이제 그 어멍이 먼 듸서 그 아들 이름을 부르는 거라. 경허멍 손을 영 ᄒᆞ멍 이런 ᄒᆞ난에 영 뒤 돌아서는 그 당시에 어멍이 죽어 부러신가 죽음인가 어떵 ᄒᆞ난에

그 여자가 열녀 턱 세우데.

28. 뻐꾹이 유래

조사일시 : 2006년 8월 5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양현숙(여, 1943년생, 양띠)
요약 : 한 가난한 집에서 시집살이하던 며느리가 이웃에서 갖다 준 떡국을 먹었다는 모함을 받고 억울하여 자살하였다. 떡국에 한이 맺힌 며느리는 뻐꾸기로 환생하여 '떡국떡국' 울게 되었다고 한다.

시집살이 하젠 ᄒᆞ난 시 어멍네가 베도 고픈지 하도 박복하니깐 이젠 그 시어머니네가 떡국을 헹 먹어동 며느린 안 줘서, 동네 사름이 갖다줘도 며느린 안 주고 자기네만 다 먹곡 게난 한이 그 여자가 한이 멧형 그 떡국을 한번 먹어 봐시믄 허영 죽엇는데, 그 새로 환생헤 가지고 (다른 할머니 끼어듬) 아니 게난 모르주게. 그 동네 집에서 이제 떡국을 헹으네 가져와신디 그 며느리가 먹어신지 말아신진 모르는디 그거 갖고 떡국이 어서 부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만 먹엇젠 막 ᄒᆞ는거라. 시어머니는 며느리만 먹엇젠, 막 이젠 모함 ᄒᆞ는 거 아니. 막 모함 ᄒᆞ난 양, 모함 ᄒᆞ니깐 이젠 그 한이 멧혀 가지고 이젠 어쩔 수 어성 그 며느리가 죽어분거라. <조사자 : 진짜 못된 어멍이우다예?> 응, 못살게 헹 죽어부니까 이제 그 며느리는 한이 멧혀 가지고 이제 그 뻐꾹 뻐꾹 ᄒᆞ는 것도 떡꾹 떡꾹 헤여. 우리 듣기는 뻐꾹뻐꾹 ᄒᆞ는디 또 사름 어떤 사름 듣는거는 떡꾹떡꾹 ᄒᆞᆫ다고. 경ᄒᆞ난 그 사름이 죽으니까 뻐꾹새로 환생헤가지고 떡국 떡국 ᄒᆞᆫ다고.

29. 헛개와 도채비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6일

조사장소 : 서성동 나무정자 아래

제보자 : 강개출(여, 1921년생, 닭띠)

제보자 상황 :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정하셨다. 처음에는 모르겠다하시면서 좀 꺼리시는 듯 했지만 이내 이야기도 재밌게 전개하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칠 수 있었다.

*32~34제공

요약 : 헛개는 윗 모습은 있고, 아래는 없는 악한 존재이며, 도채비는 선한 존재로 인식된다.

강개출(여.1921년생)

헛개가 나와야 홀려당 들이쳐부는 거지. <조사자 : 아~헛개가~> 응. 헛개는 톨락톨락 도채비는 두 눈 팔록팔록 ᄒᆞ곡 헛개는 사름으로 나와서 전상[22]으로 우엔 싯고, 아렌 어서, 치마 입엉 여기 가다가 공중으로 날아 댕경 사름이카부덴 허거니 둘랑 가는 거라. 떠 둘랑 가당보면은 사름을 들이쳐불믄 죽곡 그런 거지. <조사자 : 아~ 헛개가 사람을 쳐 부니까 사름이 죽어마씨?> 응. 홀려다가. <조사자 : 게민 헛깨가 나쁘고 도채빈 좋은 거우다예> 어. 도채빈 그냥 혼만 ᄒᆞ는 거. 사름 오민 꺼져부는 거. 사름 봐가믄. 사름이 실성 헹 깬 사름은 봐가믄 불이 꺼져부는 거. <아~ 사람이 심이 쎈 사람 이시믄 꺼져부는구나 예>

22) 비정상적인 행위나 마음으로, 본래 타고난 모습

30. 아기 조롬에 ᄇᆞ름 넣은 다숨어멍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6일
조사장소 : 서성동 나무정자 아래
제보자 : 강개출(여, 1921년생, 닭띠)
요약 : 새 어머니가 자기 자식만 밥을 먹이고 다른 자식은 밥을 먹이지 않자 아이의 아버지가 밥을 많이 먹이기 위해 꽁무니로 바람을 불어 넣었다는 전설.

지금은 새 어머니인디, 옛날말론 다숨어멍. <조사자 : 옛말에 다숨어멍 왕으네 자식들 밥도 안 줘불고?> 게난 이녁 난 아긴 반찬도 잘 주곡 이듸 할아방 신 집이 애긴 아기난 이녁난 애기 아이난 궤기도 아이 줜. 밥만 혼 적[23] 줜. 국물로만. 다숨어멍 오라서 다숨애기를 남편이 와서 아기를 그자 조롬[24]으로 풍선 잇지? 풍선 꾀서 푹푹 불어부니까 그 아기 죽여도 부러나서. <조사자 : 풍선 불엉마씸?> ᄇᆞ름 들이물앙 배 이마니 헹 배 까지게. 젓을 안 멕이고 밥 하영 멕이구렌 허잰. 밥을 아이주민 여러 번 그거 볼 거, 시상에 좋은 거지게. ᄇᆞ름만 담앙 꺼지민 메기나무는. 오장에 밥이 엇이민 살아져게. <조사자 :게믄 다숨어멍 헛개에 보내사쿠다양?> 경허주게.

31. 개미와 매미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6일
조사장소 : 서성동 나무정자 아래
제보자 : 강개출(여, 1921년생, 닭띠)
요약 : 개미는 부지런하여 여름 내내 양식을 비축 하여뒀다가 겨울을 나지만,

23) 한 숟가락
24) 꽁무니

매미는 게을러서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을 준비 못하고 죽게 되어 개미는 오래 살지만 매미는 여름 한철 1주일 밖에 못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

개미가 자기 태어날 적에 개미는 명이 길게 태어나고 자리는 일주일 밖에 안 태어났어. 게니까 이 듸(나무) 올라서 노래만 소리만 여름에 막 좋아져 소리햄찌. 소리허곡 개미는 이제 노래도 못ᄒᆞ곡 ᄒᆞ난 그냥 이 듸 열심히 해서 개성살제 저성 살아야 ᄒᆞᆯ 거 아니? 땅 속에서 얼어서 못 사난 이놈의 것 양식을 들고 들고 물어다가 여기 여름 내내 제겼어. 제기고 제겨서 겨울 내내 먹은 걸로 ᄒᆞ고 자이는 더웡 실프니까 낭에서 노래만 ᄒᆞ는거라. 노래만 ᄒᆞ다가 겨울 들어가니까 개미신디 가서 나 먹을 양식을 ᄒᆞ끔 도라, ᄒᆞ니까 나 먹을 양식을 도라 ᄒᆞ니까 자리를 ᄒᆞ끔 도라ᄒᆞ난 나 겨슬 들엉 살 자리를 도라 죽아서 자리가 ᄒᆞ난 개미가 양식은 주카몰랑 자리는 집이 죽아서 줄 수가 없다고 개미 들어가는 듸 재열[25] 들어가지나게. 못 들어가니까 ᄒᆞᆯ 수 엇이 이제는 양식은 주카몰랑 자리는 못 주겠다난. 제게 죽어분 거라. 들어갈 듸가 엇엉 죽어부렀주게. 게난 일주일벳기 못 사는거라. 노래만 소리좋게 ᄒᆞ다가 죽어분거라.

32.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6일

조사장소 : 서성동 나무정자 아래

제보자 : 강남인(여, 1914년생, 범띠)

제보자 상황 : 연세도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야기를 길게 해주시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짧고 간단한 이야기라서 훨씬 이해가 쉬웠던 시간이었다. 언어유희를 통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던 색다른 시간이었다.

25) 매미

*35~38제공

요약 : 게으른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물음에 동문서답하는 내용.

강남인(여. 1914년생)

옛날 어떤 아주머니가 메누리를 ᄒᆞ여 오니까 메누리가 늦잠을 자면서 일어나질 안ᄒᆞ여. 게난 이제는 시어머니가 말ᄒᆞ되 메누리를 일리젠 말을 ᄒᆞ기를,

"메누라 일어ᄂᆞ라 강 일헤, 해 발람쪄."

경ᄒᆞ난 시어머니가 비오람시난 마당 들이우쿠다. 이녁 세젠 마당 들이렌 허여? 우리 세젠 마당 아니 들인다. 이 세젠 강알에 해 발, 아니 발른 디난. 아이구야, ᄒᆞᆫ 마디만 지라. 아명 집을 짓은 들 술로리 서말이사 못 집니까. ᄒᆞ니까 아이구 야야, 콩에 콩 심으지 말라. 너른 밧 엇엉 콩에 콩 심습니까. 돌아졍 ᄃᆞ시리지 말라. 쒜마[26]께 엇엉 돌아졍 두드립니까. 산짓물 엇엉 동문서답 ᄒᆞ리우까. 저 제주 산짓물에서 빨래를 ᄒᆞ영 노렌 동문서답 ᄒᆞ지 말라 ᄒᆞ난 산짓물어성 동문서답 ᄒᆞ리우까 ᄒᆞ고 끝나버렷지.

33. 젊은 남자가 젊은 아주머니를 희롱한 이야기(언어유희)

조사일시 : 2006년 8월 6일

조사장소 : 서성동 나무정자 아래

제보자 : 강남인(여, 1914년생, 범띠)

요약 :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희롱하는 언어유희

일로 ᄒᆞ연 젊은 남자가 젊은 아주머니를 만나니까 희롱ᄒᆞ젠. 저레 가는 아

26) 나무이름

주머니 얼굴도 곱소. 그렇게 해서 곰은 무신 거 마씸? ᄒᆞ난 이렇게 인간이 뒈지, 무사 삼도전 거리에서 ᄉᆞ주[27]나 보저 오행 육갑을 짚어보니 칠살이가 메엿구나, 팔자도 험악ᄒᆞ다. 그거 다 나오게ᄒᆞ난 일, 절간 중놈아 삼도전에 ᄉᆞ대절에 오만도 ᄒᆞ다. 육절도 칠ᄆᆞ을에 팔도강산을 돌아보니 구ᄒᆞ는 거 십나.

34. 막가름 못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6일
조사장소 : 서성동 나무정자 아래
제보자 : 강남인(여, 1914년생, 범띠)
요약 : 막가름 못의 명칭유래.

여기 원래 사름이 살기 전에 저쪽에 아주 쪼그맣고 허연 옛날 오막살이 집을 짓언 살앗주게. 경ᄒᆞ연 난 때에 저 못을 판 거란 말이여. 그 못을 팔 적에는 일홈을 막 가름에 집을 짓어난 듸 못을 파난 막가름 못이라고. 막가름 못, 막가름 못이렌 일홈을 지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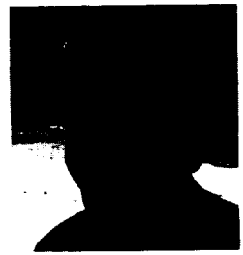
35. 구몰동의 효자 할아버지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5일
조사장소 : 구몰동 나무정자 아래
제보자 : 현수진(남, 1943년생, 양띠)
제보자 상황 : 농가사업으로 바쁘셨지만 특히 거주하고 계신 구몰동에 대한 이

27) 사주팔자

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 현재의 현씨 가문에 대한 정보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말씀을 잘 하셨고, 이야기 전개도 매끄러워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38~41제공.


현수진(남.1943년생)

요약 : 한 남자가 부모님 상을 지낼 고기를 구하지 못하여 한탄하자 노루가 그 옆에 와서 죽어, 노루 간으로 상을 지냈다고 한다.

그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시면은 한글로 치면은, 서기로는 잘 모르고, 삼백네 술이여. 살앗더라면은 삼백네 술인데 돌아가기는 일흔일곱에 돌아갓나? 돌아가기는 일흔일곱에 돌아가셧고 왜 그 할아버지가 효자가 뒈엇냐면은, 요 구몰의 오라가지고 구몰의 서씨라고 큰 할머니가. 큰부인이 서씨. 서칩의 장개 들어갓고 여기 살면서 원래 애월이랏거든. 원래 애월인디 여기 장개와 갓고 주식을 못 낫어. 우리 효자 할아버지가. 주식이 없어 갓고 결혼혜 갓고 혼 십 년 넘어 살앗어. 넘어 살도록 주식이 없어가지고 서른 혼나에 주식을 갖거든. 주식을 보는데 저 노형 작은 부인을 만낫어. 작은 부인을 만난 게 웨 만낫냐면 아버지가 애월서 저 제주시 우의 아라동 노형목장인가. 거기 모셩이서. 거 모션 잇는디 그 때에 웨 노형서 족은 할머니를 만낫냐면은 여기서는 그때 옛말에 그저 뭐라고 말 들어봣죠? 사름이 돌아가면은 초하루, 보름, 삭일이 삭일이라 혼거는 초흐루삭, 보름 망, 초하루는 삭이고 보름은 망이고, 삭망삭이라고 헷거든 옛날에. 삭망삭이라고 헷는디, 삭일을 홀랴니까 여기선 머니까 노형서 옛날은 삼년이지만 이십스 개월. 옛날에는 삼년 삼년 혼잖아요. 소상 대상 혼믄 헷수론 삼년이지만은 이십스개월이거든요. 소상하고 대상을 혼는 순간이 죽어서 일년후에 소상혼고 또 일년후에 대상혼고 이십스개월만의 탈상을 혼는건디 거 한번 두 번 삭일 혼는 것을 노형서 그 손수장이렌 혼디 아라목장에 혼자만 가서 제를 지넷거든. 집의서 안헤서 요즘 중간에는 집의서들 대게 헷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

돌아가믄 집에서 초하루. 지금은 초하루만 ᄒᆞ는듸 잇다고 ᄒᆞ는데 보름은 안헤 잣고. 초하루만 ᄒᆞ는데 삼년간 ᄒᆞ다보니까 ᄒᆞᆫ번은 그 제찬 지금ᄀᆞ트면 적갈. 적갈을 못헤갖고 한탄을 헷어. 그 부모 묘에가서 업터져서 한탄을 헷어. 지금까지는 제찬을 떨어지지 않게 헷는데 오늘 만큼은 ᄌᆞ식의 도리를 못합니다. 헤서 통곡을 헷어. 통곡을 ᄒᆞ다 보니까 노루가. 노루가 산 묘 곁에 와서 엎드리거든. 쓰러졋어. 쓰러지니까 그 할아버지는 뭔 생각을 헷나면 고기보다는 간. 돼지 잡으면 간들 먹잖아요. 그 간이 실제로 간을 헤서 삭일을 지넷다고. 그래서 그게 언제 됀느냐면 지금은 뭐시 하나 그 발명ᄒᆞ면은 연구ᄒᆞ고 연구ᄒᆞ고 몇 년 후에 그 뭐냐 개발인으로 나오잖아요? 특허. 특허를 맞추면은 몇 년 몇 년 실습ᄒᆞ고 실습ᄒᆞ고 자꾸 헤서 이게 틀림없다 헤야 신청을 헤도 이게 그 나오는디 이 효자도 그렇게 헤갓고 ᄒᆞᆫ 백년후에 나왓어. 백년후에. 순종 때 나왓어. 순종 때. 순종 때 그 뭐냐 상방록에 효자 발문이 네린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지금 그런게 지금 내가 말 ᄒᆞ는게 무슨 특허를 하나 내면은 상신 하면은 그게 심사ᄒᆞ고 심사ᄒᆞ고 막 거쳐가지고 나오고 박사학위를 주고 그렇잖아요. 몇 년 걸리면서 요즘은 ᄲᆞ르지. 옛날엔 제주에서 긔 하나 상신ᄒᆞ면은 거 좀팍배. 거 작은배라고 하면 좀팍배. 뗏목 닮은 거. 걸로헤서 서울 걸어서 그 올라가고 또 걸어서 심사헹 내려오젠ᄒᆞ면 몇 년 걸렷거든요. 거 지금도 뭐 저 장관하나 바꾸면은 저 전 장관 ᄒᆞ던 것이 무산되고 새 장관이 들어와서 바꾸고 바꾸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ᄒᆞ듯의 상신을 헤도 순종 때 내려온거예요. 발문. 불문이라고 ᄒᆞ면은 지금 ᄀᆞ트면은 인가장이죠. 허가장. 이 사름은 효자다. ᄒᆞᆫ게 내려왓죠. 그 ᄌᆞ손이 우리 동네에 사는 현씨들이 제주대학교 초대총장 현태규박사 아시나요? 그 사름이 이사름 9대 할아버지예요.

36. 상수ᄆᆞ름 부저리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5일

조사장소 : 구몰동 나무정자 아래

제보자 : 현수진(남, 1943년생, 양띠)

요약 : 상수ᄆᆞ름에 사는 부저리라는 부자가 이웃사람들을 많이 도와, 사람들이 부저리가 살았던 상수ᄆᆞ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 상수ᄆᆞ름 부저리가. 부저리렌 ᄒᆞᆫ거는 부자라는 말이지. 부가고, 부칩이가 부자로 살면서 곡식을 많이 헤갓고 환상, 환상이라고 ᄒᆞ면은 지금말로는 뭐라고 ᄒᆞ냐? 저. 이웃의 못사는 사름 나눠주는 거. 요즘 수재민 돕기 이런 거 모금 ᄒᆞ고 구호물자 집의 싯는거. 옷도 내다주고 이런 거 뭐라 ᄒᆞ느냐고 그런 식이랏주. 곡식들을 자기네가 먹나 남은거라. 부자가 돼니까, 게니까 그 때 우리가 들은 말로는 환상인디, 환곡이지. 그렇게 ᄒᆞ믄 이해가 가겟지요? 환곡ᄒᆞ민. 옛말을 환상이나 환곡이나 ᄀᆞ튼건디 상은 뭐냐면은 그 상고라 뭐라고 ᄒᆞ느냐. 게니까 그 도와주는 걸로 헤서 환상이라고 헷주. 그땐. 말을 ᄒᆞ끔 높이 불러가지고 그 사름 ᄒᆞ는 식을 높이 불러가지고 이 사름을 상준다. 곡식으로 상준다. 곡식으로 환상, 환상 ᄒᆞ는디 지금은, 지금 말로 헤야 ᄒᆞᆯ 철인디, 그 부저리가 그렇게 잘 살아서 그런 거 환상을 이웃 부락에 많이 줫고 또 수원 휘칩, 휘가, 휘칩이 또 그렇게 잘 살아가지고 곡식을 많이 네 가서 임금을 주게헷고 <조사자 : 게믄 휘가에서 곡식 막 남으니까 주믄 복 받앗겟다예?> 그래서 일름이 나는거지. 지금 저 뭐 제주도 문헌엔 없을거고, 우리가 옛날 어른들 ᄒᆞ티 들은애기. 상서ᄆᆞ름 부칩. 수원의 휘칩. 구몰의 서칩. 세 부자가 잇엇어. 세 부자가 잇엇는디 거 지금 ᄀᆞ트면은 읍 같은데서 애월읍면의 읍민이 절량 ᄒᆞ거가 돼서 굶어지니까 좀 잇는분들 좀 네놓으시오 네놓으시오 ᄒᆞᆯ 때 제일 처음 상수ᄆᆞ름 부칩의 가니까 난 백석을 네놓겟소 ᄒᆞ거든. 이제 수원 휘칩의 가니까 상수ᄆᆞ름 부칩의서 뭐라고 ᄒᆞᆸ디가? 헹으네 백석, 난 그럼 이백석 네놓겟소. ᄒᆞ연. 구몰에 오니까 몇석을 내놓겟냐 그러니까 백오십석을 네놓겟소. ᄒᆞ연 부칩이는 그레가지고 상수ᄆᆞ름이 제일 족영 네놔도 봉성 사름ᄒᆞ티 들으니까 상수ᄆᆞ름 부저리가 살아난 상수ᄆᆞ름이다

헤서 일름을 지어분거고 딴건 ᄒᆞ나토 안올라간거예요. 그레서 그 사름들이 지금꺼지 끌어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곡식들은 네놔가지고 저 환상 줫다는게 읍에 네니까 직원들이 뎅기면서 없는사름 곡식 타가라고 자꾸 그레서 우리말로는 그 보상 뭐냐면 그 환상헤준거주. 뭐냐 곡식 아이돼면 정부에서 돈 보상헤주는거 그런거 환상을 네 집에 나눠줫주. 그레서 그 상수ᄆᆞ름 부칩, 수원의 휘칩, 구몰의 서칩. 이런말이 난거고 그 말은 걸로 끝이여.

37. 하원밧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5일
조사장소 : 구몰동 나무정자 아래
제보자 : 현수진(남, 1943년생, 양띠)
요약 : 보석장수가 하원밧에 사는 도적에게 속아 죽을 고비를 맞는데, 보석장수가 재치를 발휘하여 위기를 넘긴다는 이야기.

도적놈이 하원밧듸 집을 지성 살앗어. 원래 도둑놈은 아닌디 여하간 하원밧듸 집을 지성 살앗는디 보석장시가 제주시에서 보석을 팔면서 서쪽드레 쭉 나왕에 집이 옛날 후안국시절에 집이라, 이만이 넓이ᄒᆞ여. 넓이가 요만큼 허는디 요쪽에서 사름이 너른 팡이 잇는디 요 동산에서 사름을 만낫는디 어디 잠잘디가 잇으리오 ᄒᆞ니까 요디 강 일레 조금 가면은 해 너물건 저물건 네려오시오 헷거든. 집으로 오면 내가 제워준다고 우리집이라고 밤의 자던 아들ᄒᆞ고 거 같이 잣어. 그 집의 아들ᄒᆞ고 자단보니 설캉설캉 칼을 콜거든. 그는 일홈 소리가 나. 이거 회한ᄒᆞ게 돌아가게 됏다. 제라ᄒᆞ게 죽을 뒬 들어오라 졋느냐 이런 생각을 헷거든. 이래서 이 하르방은 이 어른은 그 자기는 바깥에 아들은 안에 눟어. ᄒᆞᆫ디 이 젊은 사름들은 좀을 만히 자잖아요. 술짜기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바깥에 쓱 밀어두고 자기가 안트레 눟어. 이건 뭐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칼을 ᄀᆞᆯ아서 아들을 오란 죽엿어. 응 그 보석 장시 그 보석 빼앗을라고 보석 폰거ᄒᆞ고 보석 빼앗아가지고 자기도 먹엉 살라고. 그래서 아들은 안에 눕졋는디 자기는 보석장수 바깥에 눕고, 겐디 이제 쑥 밀어가지고 바깥으로 눕고 자기는 안트레 누웟어. 안트레 누우니 결국 오란 칼ᄀᆞ란 죽엿거든. 죽이니 이제 이 사름은 다 헤졋다고 밤에강 턱 걸러졍 자부럿거든. 보석장시는 그 순간에 문을 열고 뛰어나갓어. 도망갓어. 도망가서 뭣을 ᄒᆞ느냐 ᄒᆞ면은 그 도망가가지고 멀찍이 갓고, 보석소곱[28]에 보석이 영 된거니까 나무를 빼서 영 달게 된거거든. 거 보석소곱에 뭐냐 걸 곱져노면 그 소곱에 몰래 쇳물에, 용광로, 용광로 역할을 ᄒᆞᆫ거지. 용광로에 쇠를 부우면 이렇게 그릇을 만들면 속에는 불에 타지 안허는 용광로 타지 않는 걸 묻어야 가다가 떠날거 아냐. 소금뿌릴 거 아냐. 보석이 그런거거든. 이렇게. 이 나무 질러서 보석 영 갈겨드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파가지고 조금. 아마 요즘말로 이걸로 ᄒᆞᆫ 두어개쯤은 만든 모양이여. 만들어가지고 걸렷어. 그놈은 이제 사름 죽여뒁 안심ᄒᆞ고 자당보니까 사름이 아들은 죽고 사름이 없거든. 걸리니까 그 흙아니고 몰레[29] ᄀᆞ튼거야. 그게 몰레 몰레 ᄀᆞ튼걸로 딱 치니까 눈드레 확 뿌려부럿거든. 그 몰레가 눈 양쪽에 들어가니까 캄캄 ᄒᆞᆯ거아냐. 눈만 씻단 보니까 멀리 도망가부럿어. 그래서 그 보석장시는 살앗다. 이런 전설이 잇어.

38. 구몰동 못 전설

조사일시 : 2006년 8월 5일

조사장소 : 구몰동 나무정자 아래

제보자 : 현수진(남, 1943년생, 양띠)

---

28) 속

29) 모래

요약 : 구몰동 못의 유래

<조사자 : (구몰동의 못을 가리키며) 겐디예, 이거 그냥 막 물 갖다 부어부난 못 된거꽈? 아니면 그냥?> 자연수. 이게(손으로 못을 가리키며) 기와를 구웡 파 분듸주게. 이긔 못이 널러나서. 요요 잇잖아게, 요거, 요 금 밋으로 영 헹. <조사자 : 아~ 이거 다 메꾼거구나예?> 이거 다 메꾸앙 길 멘들어 부럿주게. 요듸 요듸도 요 선에서 여기 못이 들어와나서. <조사자 : 완전 커낫구나예? 할아버지, 게민 여기까지 전부 다 기와터 아니어난 마씸?> 기와터. 게난 그때는 옛날엔 커낫지. 이 못이. 저 우에 서쪽으로 까지게. 영. 여기가 왜냐면은. 여기는 서빌레, 저기는 동빌레. 저기가 뿔각같이 생겻어. 그래서 구머리렌 훈게 왜 구머리냐? 거북 구자. 빠질 몰자. 구몰리. <조사자 : 아~ 거북이가 빠지는> 진흙에 빠졋다. <조사자 : 원래 게믄 여기 땜에 구몰이렌 한거구나예?> 이 못을 보고 구몰리. 지명이 그렇게 셍겻덴.

39.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유

조사일시 : 2006년 8월 6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임진(여, 1922년생, 개띠)

제보자 상황 : 이야기 뿐 아니라 소리도 잘 하시는 분이라 기대를 많이 하고 찾아뵙던 분이었다. 몸이 좀 안 좋으셨지만 이야기 하나하나에 실감나는 상황을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셔서 듣는 내내 주의를 집중할 수 있었다. 특히 이야기에서 대화체가 나오면 어조와 억양도 뚜렷하게 구분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들었어도 이야기 한 편이 그려질

임진(여, 1922년생)

정도였으며, 전후 상황의 묘사도 잘해주셔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42~45제공

요약 : 세 아들이 전부 조상님 제사를 지내지 않자, 제사를 먹으러 왔던 조상님이 이를 괘씸히 여겨 생전에 친구 몸속으로 들어가 벌을 주었다는 이야기.

조상님이 왓다 갓는 연말은 조상님이 아멩헤도 옛날 지금 제사 먹으레 오란 보니깐이 이제 자식들이 누원 잠서. 누웡 잠을 자부럼서. 이젠 셋아들네 집에 가보니 좀을 자부럼서. 또 큰집이도 강보니 좀을 자부럼서. 경헨 ᄒᆞ니 족은 아들네 집의 가보니깐이 족은 아들네 집의선 제산 아이 출리고 원미[30]를 쒀나서. <조사자 : 귀신 먹는 죽 마씨?> 응. 원미를 쑤놔둬서. 원미를 쒀 놔뒷는디, 이제 작은 아들네 집의 경허난 그 살 때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신디 간에 "자네 잠서?" 거 아무친구 아닌가. 어떵허연 이녁 제산디, 제삿집에 아이가고 오랏는고. 제삿집에 강 보니, 큰아들네 집이 강보니 누원 자부럼고, 셋아들네집이 강보니 누원 자부럼고, 족은아들네 집이 오란디, 원미를 쒀 놔뒷다고, 원미를 쒀 놔둬시니 우리가 잘 먹엉 감서. 잘 먹엉 가는디 이 놈의 새끼들이 배신스러와서 내가 궤씸스러와 궤씸스러우니깐이 내가 쳬를 주고 가겠어. 거 뭔 친구가 그런 말을 허여. 그런 말을 허지마라. 아니 이 놈의 자식들을 본 때를 뵈어야지.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를 제삿날을 잊어분다. ᄒᆞ니, 그거 뭔 말이 됀 말인가. 게민 가단 이젠 돌아오라자당 엥엥 허영 돌란 나오난에 그 불살른 데에 아기 자락 건드려 부렷다허여. 내 저 가당으네 꿩 궤기 ᄒᆞ나 불 위에 지져동 가크라. 꿩 궤기 하나 불 위에 지지다니 거 뭔 말을 그런 말을 허엿는고. 경허난 어떵 허연 오란 보난에 원 불을 살랑 뭐싸 헤신디 헴시난에 아긴 누언. <조사자 : 누게가?> 그 하르방이. 하르방이 영혼으로 경행 가멍 저 하도 궤씸스러완에 꿩궤길 하나 불레레 지져동 감서. 그런 전설이 잇주게. 경허난 조상이 전연 엇데는 할 수 엇어.

30) 월미

40. 도채비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6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임진(여, 1922년생, 개띠)

요약 : 도깨비를 모셔 돈을 많이 벌었던 집안이 결국 패가했다는 이야기.

도채비도 사귀어그네 돈을 하영 벌어, 도채비 사귈 때에 만히 벌어지주만은 그 도채비 사귀어난 집이 끝내는 파탄이 되불엉 업서. 저 동카름 동네에 삼메 이서방 삼메 이서방 ᄒᆞ는 집이 잇어나서. ᄒᆞ는 집이 이신디 그 어른넨 원 젊은때부터 ᄒᆞ는 건 나가 잘 몰르고 ᄒᆞ끔 늦은 ᄒᆞᆫ 때부터 살아네 일인디 그 듸 뚤 들도 싯고 아들들도 싯고 헤연 삼메 이서방이엔 ᄒᆞᆫ거는 도채비 위ᄒᆞ난 ᄉᆞ못 삼메떡 부끄듯 활딱활딱 돈을 벌엉 막 부껏헤연 ᄒᆞ고 이제 자식들도 자손들도 막 번성 ᄒᆞ고 헤연 ᄒᆞ당 그 아방쪽이 경ᄒᆞ당 아방네 죽어부리고 삼메 이서방은 게 난ᄒᆞ네 경 잘 외워들 못헤연 잘 되워들 못ᄒᆞ나네 이젠 아기들도 나멍 다 죽어불고 경 도웨려 놔둔 돈들도 다 헐어불고 이센. 경헤연 ᄒᆞ난 그 하루 도채비 사귀여네 본딱본딱 경 돈을 잘 벌어난 삼메떡 부끄듯 돈을 벌엄 따 헤연. 삼메 이서방 삼메 이서방 별량을 지은거여. 경허연 별량을 지은거나넨 그 하르방네가 몃 성제, 삼형제라 낫지. 삼형제라 난디 큰 아들네도 자손들이 다 죽어브넨 엇고, 셋 아들네도 자손들 다 죽어브네 엇고, 또 족은 아들네도 죽어브런 뚤 ᄒᆞ나 벳기 엇고, 경헹 살아가당 이젠 그 하르방네도 다 죽어불고 그 ᄎᆞ자손들도 다 죽어부리난 아무것도 엇어젼. 이젠 아무것도 엇어젼.

41. 토산뱀 이야기

조사일시 : 2006년 8월 6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임진(여, 1922년생, 개띠)

요약 : 토산 뱀은 여성을 따라 가며, 잘 모시면 부자가 되고, 안 모시면 화를 가져온다고 함.

정의에서는 토산귀신이 잘 나온다고 <조사자 : 배암, 배암> 정의 며느리 헤오젠 ᄒᆞ면 남군 사람들도 꺼리껴 <조사자 : 남군, 토산이 남군인디> 토산이 남군이라도 남군에선 그 뒨 토산은 정의랜 ᄒᆞ주게.

정의, 정의랜 ᄒᆞᆫ거는 정의가 어딜로부터 정의인고 ᄒᆞ면은 저 중문 위로 하원으로 ᄒᆞ영 도순이 끄장은 그다지 안ᄒᆞ고, 저편으로 강 고군 위로 ᄒᆞ영 서귀포로 토평, 토평으로 ᄒᆞ영 이젠 신효영 ᄒᆞ는디 옛날엔 쉐 둔이엔 헤 낫지. 쉐 둔이연 헤난디. <조사자 : 효돈> 효돈, 효돈이엔 헤난디 이젠 그 듸 사름들 ᄒᆞ고 글로 또 동터레 가면은 토산, 토산 사름은 배암 구신이 뚤을 이제 새 각실 돌아오라 가믈 ᄒᆞ면은 그 뱀에도게 조금에 노랑ᄒᆞᆫ 뱀이 줄창 문다는구나. <조사자 : 얼마나 큰 거렌 헙니까?> 크진 아니헌덴. 베염이 크든 아니헌덴. 그 돌뢍 온 거 볼 사람, 옛 어른들은 봐 난 모양이라. 경 돌뢍 오란 ᄒᆞ믈ᄒᆞ면은 그 새 각시가 들어오라그네 신랑 집이 들어오라그네 영 헤영 앚음을 ᄒᆞ면은 그 베염이 이젠 후두두두궁 ᄒᆞ게 들어오믈 ᄒᆞ면은 다 비켜블은 그 새각시 치매통데레 영 치매통데레 톡 들어오면은 그 치매통에 그 베염을 궤팡데레 놩으네 옛날엔 궤팡이 어셔 낫주게. 궤팡데레 강 영 ᄒᆞ연 비움을 ᄒᆞ민 그 궤팡 안테레 가그네 그 베염이 기어들엉 ᄎᆞ지 ᄒᆞᆫ다는거라. 경 홀라민 그 베염을 잘 헤영 그 새각시가 오라그네 그 집이 오랑 그 베염을 잘 모시면은 그 집이 오랑 막 부ᄒᆞ고 그 베염을 또 남편이나 좀 반대ᄒᆞ고 그 영 ᄒᆞ민 잘 모시지 못ᄒᆞ민 또 안뒈. 그 귀신은 아주 더러운 귀신이라. 토산귀신. 그

베염귀신은 아주 더러운 귀신이라. 경 헨 ᄒᆞ난 경 헨 잘 모시면은 경 잘 부ᄒᆞ고 잘 안헤영 누게 반대나 ᄒᆞ고 헤여 가믈ᄒᆞ민 이 토산것들 베염 귀신 돌라논거 베염귀신 돌라논거 영영 ᄒᆞ고 헤여가믈ᄒᆞ민 줴를 줘브러그네 ᄉᆞᄆᆞᆺ 망헤불고 경ᄒᆞ난 이 서구포 강 이, 쉐ᄃᆞᆯ 토산 새 각시들은 이제 글로 이펜데레 남군이옌 ᄒᆞ도 글로 이펜데레 사름들은 그 듸 새각시 ᄃᆞ라오젠ᄒᆞ면 쪼꼼 꺼리껴 우리 시대에도

42. 귀신이 데려갈 ᄌᆞ식 지킨 어머니

조사일시 : 2006년 8월 6일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제보자 : 임진(여, 1922년생, 개띠)

요약 : 옛날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집안의 나무에 귀신을 모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자신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다. 그 이후 시어머니가 죽고 그 며느리는 귀신을 모시지 않게 된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되자 꿈에 귀신이 나와, 이 자식은 니 자식이 아니니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고, 그 며느리도 자신 아들이 아니라면 데려가라고 한다. 그 이후 아들은 죽게 되고, 이와 같이 둘째 아들도 죽게 된다. 며느리가 셋 째 아들을 낳자 그 귀신이 또 꿈에 나와 아들을 또 데려가겠다고 하자, 며느리는 이 아들은 자신 아들이니 데려갈 수 없다고 귀신과 싸운다. 이후 셋째 아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옛날 어듸 저 조수인가, 어듸 낙천인가 ᄒᆞᆫ디, 이제 화순서인가 어듸 선가 시집을 오랑 보난에, 시어머니 뒤에 큰 나무가 잇는디 ᄒᆞᆫ달에 ᄒᆞᆫ번씩 옛날은 이젠 그릇들이 많아난 ᄒᆞ주마는, 옛날 도고리바께 업거든. 낭도고리[31]. 낭도고리에 밥을 ᄒᆞᆫ 달에 ᄒᆞᆫ 번은 날을 택하여 가지고 ᄒᆞᆫ 도고리허영 궤기 구워

31) 나무로 만든 함지박

노코 허영 그 나무 알레에 강 톡 허게 놔뒁오민 뒷날 낮에 강 보민 도고리바께 업서. 다 먹엉 도고리바께 업서. 메누린 저게 원 무엇을 헤영 놔뒁 저 모냥으로 밥을 ᄒᆞᆫ 도고리 허여 강 헤도 나 데에야 절대 말지. 시어머니 죽어부렁으네 허민 난 다시는 안허지. 시어머닌 죽어불고, 그 메누리가 아들을 나니, 이제는 아들을 밤이 이제 꿈에 아들은 늬 아들이 아니니깐에 내가 아들을 ᄃᆞ라가겟다. 그 여자가 ᄃᆞ라가라고, 내 ᄌᆞ식이 아니니깐에 ᄃᆞ라간다고 임제 엇엉 ᄃᆞ라간다믄 ᄃᆞ라가라고 <조사자 :며느리가 겁도 업시?>겁이곡 아니곡 그 시어멍 ᄒᆞ는 거 보고 이건 계획을 허연 이신 사름이난게. 경 도고리에 밥 ᄒᆞᆫ 도고리 헤당 나무 알레레 강 술짝이 밤에 강 놔두민 뒷 날 아무것도 엇이 펀찍[32] 먹어불고 먹어불고 ᄒᆞᆫ 달에 ᄒᆞᆫ 번씩 그 옛날 부젯칩이난 허엿주. 밥 ᄒᆞᆫ 도고리썩 헤당 받주는 것도 거 쉬운 일이 아니주게. 쉬운일이 아니니깐에 이제 경 허연 이젠 그 아들이 이젠 죽어부럿어. 아들을 옷곡 ᄃᆞ라가켄 허난 ᄃᆞ라가라고 당신 아들 내 아들 ᄌᆞ식이 아니니깐에 당신이 ᄃᆞ라가켄 허믄 ᄃᆞ라가라고 경허난 ᄃᆞ라가부런 죽어부럿어. 그 다음은 또 아들을 나앗어. 또 아들을 나니 또 꿈에 오란에 이 아들도 내가 ᄃᆞ라가겟다. 너가 나를 박접[33] ᄒᆞ민 내가 이 아들은 내가 ᄃᆞ라가겟다. ᄃᆞ라가라고 당신의 요구되거든 ᄃᆞ라가라고 나 ᄌᆞ식이 아니니깐에 당신이 ᄃᆞ라가켄허믄 데려가라고 경허니깐에 그 ᄌᆞ식도 죽어부럿어, 죽어부런. 아, 이제 헤 볼 도리가 엇어. 다시 나네 또 아들을 나앗어. 또 아들을 난. 이젠 아, 내 이것까정 이 놈신듸 주믄 아이 될껀디. 이걸 어떵ᄒᆞ코. 이젠 가만히 셍각을 ᄒᆞ당보니 이것도 ᄃᆞ라가켄 꿈에 오난 이제 저것도 내 ᄃᆞ라가겟다고 이번은 못 주겟다고 <조사자 아-세게 나온다예?>응. 이번엔 당신 두 개 ᄃᆞ라가시믄 말지, 이건 내 ᄌᆞ식이니깐에 당신 못 주겟다고 뭔따믄 내 ᄌᆞ식을 아닌 걸 데려가시니깐에 이건 내 ᄌᆞ식으로 난거니깐에 난 못 주겟다고 경헹 싸우니, 아 이번은 내가 들어도 감동이요, 경헹 보난 그 ᄌᆞ식은 아무렇지도 안헹 크더라.

32) 씻은 듯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
33) 박대하다. 푸대접하다.